

제목: 중국인의 성과 사랑

서문

이 책은 옛 중국인들의 성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옛 중국인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현대 중국인들의 성과 사랑은 어떤지 여러 단상이 떠올랐다. 필자가 대학에 와서 중국을 전공하게 되면서 들은 얘기는 중국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보다 개방적이라는 말이었다. 남자들의 말로 개방적이라는 말은 쉽게 잠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주로 타이완으로 어학연수를 가던 시절 선배들이 겪은 바이기도 했다. 이후 나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보고 들은 바만 해도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우선 중국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팬티가 보여도 신경쓰지 않았다. 심지어 길거리에 앉아서 다리를 째 벌리고 앉아 있는 여자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간혹 월경혈의 흔적까지 확인하며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특이한 점은 한국남자들 외에 중국남자들은 이런 장면이 익숙한지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둘 곳을 몰라하던 한국남자들도 몇 주 지나면 이런 장면에 익숙해지게 된다. 역시 문화란 상대적인 것인지, 하나같이 ‘이제는 봐도 별로 동하지(?) 않더라’는 웃음섞인 고백을 듣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멋있게 노출할까 고민하면서, 한 편으로는 가리기에 바쁘다. 가슴 파인 옷을 입으면 못 남성들이 음흉한 눈으로 쳐다볼까 수시로 가슴팍을 가리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리에 앉을 때면 짧아진 치마자락을 끌어내리기 바쁘다. 남자들의 생각은 어차피 짧은 치맛자락을 끌어내린다고 허벅지가 가려지지도 않을텐데, 그럴 바에야 왜 미니스커트를 입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들한테 멋있고 날씬한 모습을 보이고 싶을 뿐’이라고 여자들은 대답한다. 그러나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다르다. 멋 부리려고 입은 미니스커트 사이에 드러난 허벅지를 억지로 가리려는 여성의 행동은 오히려 더 시선을 끌게 된다. 이런 행동은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즉 시선을 더 끌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날씬해 보이고자 남들처럼 미니스커트를 입는 한국여성의 패션은 심리학적으로 남을 따라하고픈 동조적(conformity)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싶은 개성적(originality) 욕구는 서양이나 중국여성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서양여자들은 어차피 풀이 파인 옷을 입으면 가슴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다리가 드러나기 마련이니 개성있는 패션을 즐길 뿐, 신체의 노출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양사람들이 한국여자들이 가리려고 애쓰는 만큼 우리를 조신하고 보수적으로 볼 것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다. 서양에서 비키니차림이나 여성의 가슴노출은 별 것 아니지만 미니스커트는 훨씬 야한 차림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외국의 흥등가 여성들이 하나같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여성이 즐겨 입는 미니스커트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볼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섹시함’에 대한 기준은 동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 각국에도 차이가 있다. 한중일 간에도 미인의 평가기준이 약간씩 다르다는데, 한국여성이 얼굴미인을 추구한다면 일본여성은 가슴미인을, 중국여성은 작선미 미인을 더 중시한다는 비교도 있다. 또한 신체의 치부에 대한 관념도 동서고금이 다르다. 미국의 어느 소설가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벌거벗은 프랑스여자나 미국여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은밀한 부위를 가릴 것이다. 아랍여자라면 얼굴을 가리고, 그리스여자는 가슴을 가리고, 시리아여자는 무릎을 가릴 것이다. 또한 사모아여인은 배꼽을 가리고 중국여자는 발을 가릴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비록 중국인의 성애에 관해 국한되지만 독자들은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필자는 이 책을 쓰면서 가능하면 옛 중국에서 남성 위주의 성관념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기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중국문화의 영향이 적지않은 우리의 성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중국의 여인들이 치마 속 팬티가 보이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나 일본여성들의 국적을 초월한 과감한 애정행각도 우리 시각으로 몰상식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노출패션을 하고도 여기저기 가리기 바쁜 한국여자들에 비하면 중국 여자들은 그저 편하게, 원하는 대로 입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뿐이다. 그 와중에 치마 속이 언뜻언뜻 보인다고 해서 굳이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과잉해석일 뿐이다. 한국남자들의 음흉한 눈빛에도 중국여자들은 팬티가 드러나도 개의치 않는 당당함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여자들은 늘 성적인 피해자들이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엉큼한 남자들에게 추행을 당해도 수치심에 소리지르지 못한다. 강간을 당해도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율이 10%도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언뜻 개방적으로 보이는 중국여성들에게 필자가 ‘중국에도 이렇게 성추행 당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답은 ‘없다’였다. 중국여성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라도 엉큼한 남자의 손길을 느끼면 대뜸 ‘干什么(간선머: 뭐 하는 것이야)?’하면서 뺨을 후려 친단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선진 각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지만 여기에는 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주로 어릴 적 가정교육에 기인하겠지만)여성 자신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한 몫 하고 있다. 이제는 성에 관해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국여성들은 성적 피해자로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성에 관해 주도적인 중국여성들은 인생에서 사랑과 성을 즐기지만 하는 것일까? 사실 중국여자들이 개방적이라는 말은 한국남성들의 실제 연애경험에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온갖 내숭 다 떠는 한국여자들에 비해 사귀었다 하면 여관으로 직행하기가 더 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필자의 느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남녀들은 우리보다 감정적으로 더 순수하다고 한다. 중국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고 몸도 주었다면 감정적으로 더 솔직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필자는 중국에 유학하던 시절, 로맨틱한 한국남성들의 유혹에 반해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 이별을 겪고 힘겨워 하는 일본여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 장소가 중국인 만큼 한국남성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사랑에 빠졌다가 이별의 아픔을 겪는 중국여성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물론 외국여성과의 로맨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 한국남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내린 결론은 한국남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외국여성이 더 많더라는 것이다. 또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여성들이, 심지어 일본여성들마저도 한국의 젊은이들보다는 더 때문지 않은 ‘순정’을 간직하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는 세대, 하룻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끝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요즘, 필자는 옛 중국인의 성과 사랑에 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변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일화들을 주제별로 상론하고 있지만 전문가를 위한 문헌 위주의 서술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하도록 구성했다. 이런 차원에서 인명, 지명 등 여러 고유명사는 중국어 발음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국 한자음으로 병기하도록 했고 본문에서 중문 원문은 신지 않았지만 번역해서 본문 속 인용문으로만 삽입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각주도 넣지 않기로 했음을 밝힌다. 이렇게 저술한 이 책의 표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국의 성애문화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0년 9월 27일

저자 김명석

목 차

서문

제1장 고대 중국의 성

1. 모태개념-범신론
2. 성숭배1-생식숭배
3. 성숭배2-생식기숭배
4. 성숭배3-성교숭배
5. 신화 속의 성숭배

제2장 경국지색의 미인들

1. 李妍(이연)
2. 妹喜(말희)
3. 妲己(달기)
4. 王昭君(왕소군)
5. 趙飛燕(조비연)
6. 褒姒(포사)
7. 西施(서시)
8. 楊貴妃(양귀비)
9. 貂蟬(초선)

제3장 환관, 변태와 방중술

1. 환관
2. 이상 성심리와 성행위
3. 방중술

제4장 남녀간의 예교와 처첩관계

1. 남녀간의 예교
2. 일부일처다첩제
3. 기생

1. 고대 중국의 성

원시인들은 성을 신비롭게 생각하였다. 성숭배는 자연숭배, 조상숭배, 토렘숭배 등 3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범신론적인 것이다. 원시인들이 사소한 범신론이 지금 시각으로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시 인류가 세계를 사고하고 탐색한 것으로 인류 성문화의 기초와 맥아가 되는 의의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범신론적인 모태개념은 어떠한 양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모태개념-범신론

1) 자연숭배

중국인들은 우주만물에는 氣(기)가 깃들어 있어 이를 움직인다고 여겼다. 구름과 대지는 우주만물의 생식기능을 가진 여성의 질로 보았고 여기에 강한 기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황제의 덕은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었기에 많은 배우자(후궁)를 들였고 이는 일부다처제가 생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방중술이란 성의 본능을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방중하는 일 없이 올바르게 행하면 음양의 이기가 조화를 이루어 불로장수할 수 있다는 도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데 이 역시 모태개념과 연관이 있다.

중국의 고전 중에도 이에 대한 서술이 있다. 《左傳(좌전)》, <昭公元年(소공원년)>에는 ‘물, 가뭄, 돌림병 등의 재앙이 있으니 산천의 신을 숭배해야 한다. 눈, 서리, 비, 바람이 제때 있지 않으니 해, 달, 별의 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자연숭배의 대상이 일월성신, 돌, 물, 불, 토지 등 여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이 원시인들에게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여서일 것이다. 원시인들의 시각에 홍수, 산불 등 물과 불은 무자비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지도 신으로 보면서 숭배하게 되었다. 자연숭배 중 태양숭배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Ra) 외에 바빌로니아, 인도, 멕시코, 동남아, 폴리네시아, 페루 등 수많은 고대문명에서 태양이 신격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모택동을 紅太陽(홍태양; 붉은 태양)으로 부르는 것도 과거 태양숭배의 관념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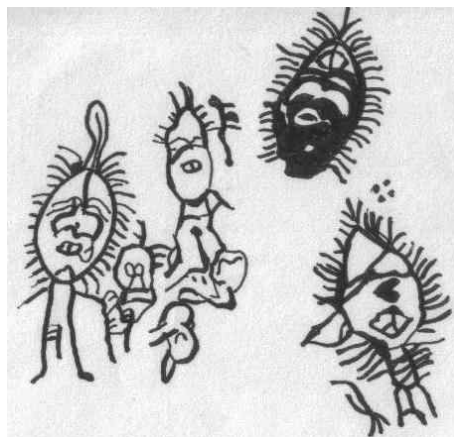


그림2

태양등 자연숭배는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남아있다. 藏族(장족) 중 일부 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오르곤족은 달에 경배한다. 阿昌族(아창족)은 태양과 달, 貴州(귀주)의 苗族(묘족) 중 일부는 하늘의 유성, 台江(태강)의 묘족은 토지신에 제사를 지낸다. 한편 그림1과 그림2는 태양의 얼굴을 한 모습이 그려진 암벽화로 내몽고 卓子山(내몽고)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역시 태양숭배와 연관지을 수 있다.

2) 조상숭배

조상숭배는 사람이 죽으면 망령이 존재한다는 원시인들의 관념에서 출발했다. 조상의 혼령이 후손을 보호해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것이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혼 불사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중국 56개 민족의 풍습에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단군왕검처럼 중국에서 조상숭배의 대상은 창세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한족의 경우 黃帝(황제), 伏羲(복희), 女媧(여와) 등이 해당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의 곳곳에는 사당에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중국인들은 조상의 영혼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조상숭배에서 친족의 관념이 생겼는데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미신의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추념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도 조상숭배의 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3) 토렘(totem)숭배

토렘숭배는 한 민족이 일정한 동물, 자연물 등에 친족관계라든지 특수관계를 상징하여 생긴 신앙을 말한다. ‘토렘’이란 북미 인디언의 말로 ‘그의 친족’이라는 뜻이다. 토렘은 씨족의 상징이 되는데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가 그렇듯이 토렘숭배로 그 씨족은 신화전설을 가지게 된다. 현재 모든 씨족에는 토렘이 존재하는데, 토렘이 되는 동식물은 대개 죽이거나 먹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숭배하는 제사를 거행한다.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토렘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풍속으로 토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용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거나 우리가 곰 토렘인 단군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것도 허황된 미신의 차원이 아니라 현대인이 스스로에게 신비로운 기억과 사색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여러 성씨에서도 토렘의 흔적이 남아있다. 馬(Mǎ), 羊(Yáng), 虎(Hū), 鹿(Lù), 駱(Luò), 龍(Lóng), 豹鳳(Mòfèng), 燕(Yàn), 熊(Xióng)씨에는 동물토렘의 흔적이, 葉(Yè), 蒲(Pú), 谷(Gǔ), 柏(Bǎi), 楊(Yáng), 柳(Liǔ), 豆(Dòu), 米(Mǐ), 桃(Táo), 李(Lǐ)씨에는 식물토렘의 흔적이 엿보인다. 또 중국에는 하란산 암벽화에 토렘과 관련한 그림이 많이 보인다.

2. 성숭배1-생식숭배

임신이나 출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옛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았다. 인구가 적어서 생산력이 낮은데 생존환경까지 열악했던 원시사회에서는 번식문제, 즉 생식이 집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고 씨족, 국가의 흥망이나 존속과 관련되므로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원시적 성숭배의 내용은 생식숭배, 생식기숭배, 성교숭배 등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생식숭배가 가장 기원이 깊다. 우선 고암화에 나타나는 생식숭배의 흔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생식숭배

1) 고암화

고암화는 고대에 만들어진 암벽화를 의미하는데 그 시대의 현실생활, 풍습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예술적 표현력, 상상력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에도 농경, 어로, 수렵 등을 묘사하는 암벽화가 존재하는데 방목, 성교, 제사 등 다양한 소재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고암화로는 賀蘭山(하란산)암화, 新疆(신강) 呼圖壁(호도벽)암화, 陰山(음산)암화, 내몽고 卓子山(탁자산)암화 등이 있다. 중국 암화의 그림은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생동감 넘치게 묘사된 점이 특징이다.



그림3

위의 그림은 여자가 임신한 모습으로 동심원은 임신부의 배를 상징한다. 중국 고대에서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둥근 모습의 임신부의 배는 태양숭배와도 연관된다. 태양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모습 또는 임신부의 배 모습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의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아래 그림에서 큰 사람은 어른, 작은 사람은 어린 아이로 성기를 노출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염원이 표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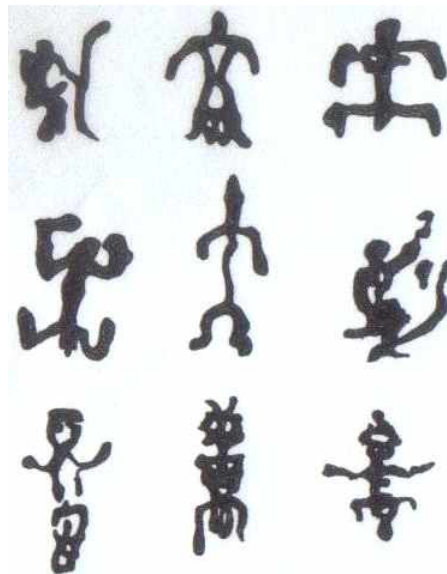


그림4

한편 그림5는 남녀의 결합을 중재하는 신령의 모습이다. 과장된 성기를 가진 남성,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배에서 후손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있는 그림6은 인구번성을 의미한다.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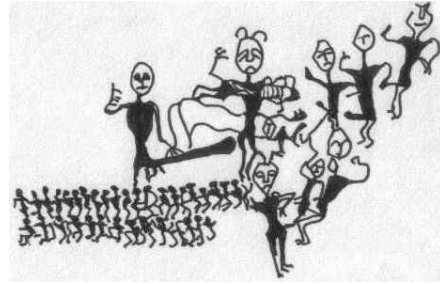


그림6

2) 문물과 상징물

아래의 임신한 여인의 모습은 5000여년 전인 1982년 중국 遼寧省 喀左縣 東山(요녕성 객좌현 동산)에서 출토된 인형으로 신석기 紅山(홍산)문화를 대표한다. 여성신체의 곡선과 자연미를 투박하지만 소박하게 살린 이 여인의 배가 튀어나온 것은 임신부임을 말해주므로 생식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오른쪽 사진은 벨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것으로 역시 큰 유방과 엉덩이, 튀어나온 배가 생식, 다산을 상징한다. 이것은 비너스상의 원형으로 구석기시대 말기까지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럽의 산악지방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나체의 이 여인상에 유방, 복부 등이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은 다산의 여신으로서 풍요에 대한 주술적 욕망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벨렌도르프의 비너스

다음 왼쪽 사진은 신석기 시대의 彩陶蛙紋瓶(채도화문병)으로 개구리무늬가 특징적이다.



彩陶蛙紋瓶(채도와문병)과 魚蛙(어와)문형의 그릇

개구리는 배가 튀어나와 있고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역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토기에 그려진 개구리문양은 생식숭배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른쪽 사진은 仰韶(양소)문화 유물인 魚蛙(어와)문형의 그릇이다. 여기에도 물고기 두 마리와 개구리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개구리 배 속에 점이 많이 찍힌 것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알을 많이 낳는 것은 물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고대의 유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는 생식숭배의 의미이고 두 마리는 여성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산의 의미를 띠게 된다. 다음은 서한시대 청동거울인 連弧紋四乳鏡(연호문사유경)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유두 4개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다. 오른쪽은 유두 8개의 동한시대 팔유경이다. 그런데 이처럼 청동거울에 유두를 많이 새겨놓은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유두가 자녀를 생육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생식숭배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送子觀音(송자관음)은 아들을 점지하는 관음보살로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같은 역할을 한다. 관음은 대개 두 손으로 합장을 하거나 손에 버들가지와 淨瓶(정병)을 들고 있고 아이 하나를 안고 있기도 한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관음의 법력은 무궁무진하여 무소불능한 보살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모습 때문에 중국 민간에서는 관음이 아들을 점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은 관음신상 앞에서 향을 사르고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기원한다.



送子觀音(송자관음)

한편 다음 그림은 청동거울로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다’라는 의미의 ‘五子登科(오자등과)’가 새겨져 있다. 아들을 많이 낳고 이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옛사람들의 가장 큰 이상이였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太極湖(태극호) 마을에서 발견된 벽돌인데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바로 관직에 오른 다섯 아들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양각되어 있는 것이다.



3. 성승배2-생식기승배

1) 고암화

왼쪽 그림은 河南 新鄭縣 茨山巖畫(하남 신정현 자산암화)로 여성생식기의 모습이 과장되게 그려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4000~8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은 활을 들고 사냥하는 모습인데 남근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암화는 춤, 사냥, 방목, 전투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대부분 우람한 남근을 드러낸 점이 특징이다.

2) 숭배물과 상징물



오른쪽 사진은 감람형을 하고 있는데 고대 중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감람형 유물은 바로 여성기의 기호였다. 따라서 왼쪽 사진은 남근, 오른쪽 사진은 여근의 모습으로 여기서 고대인들이 생식기를 숭배했음을 알 수가 있다. 생산력이 떨어졌던 고대의 인류들은 항상 각종 재난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생식에 대한 갈구가 강렬해지면서 생식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영아분만의 사실에서 자연스레 성교와 생육의 인과관계에 주목했고 여성생식기까지 숭배하게 되었다. 여성생식기에 대한 숭배는 신석기시대 초기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모계 씨족사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이후 생산영역이 확대되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부의 축적이 일어났고 전쟁이 자주 발발하면서 사회가 확대 발전되었다. 동시에 남성의 신체적 우월함은 사회작용에서도 점차 우위를 드러내면서 원시사회에서의 관념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모계사회는 부계사회로 전환되었으며 남근에 대한 숭배가 중시되었다. 이 시대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石祖(석조)에 음경의 귀두가 강조된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원시인들이 남근을 상징하는 기물을 만들 때 음경의 귀두를 드러낸 것은 음경귀두가 전체 남근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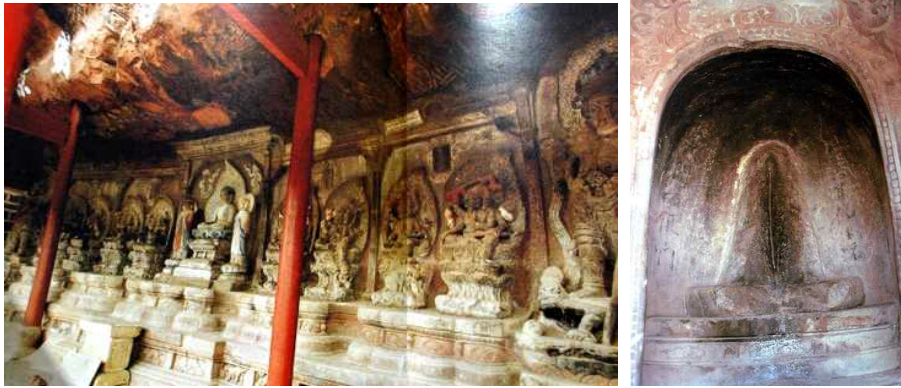
남근석

이런 생식기숭배 의식은 이후에도 성스럽게 진승되었다. 일례로 중국황실의 유물 가운데 玉圭(옥규)는 황제가, 玉琮(옥종)은 황후가 지녔던 상서러운 물건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옥규는 남근, 옥종은 여음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하고 있다.



玉圭(옥규)와 玉琮(옥종)

한편 雲南 劍川縣 石鐘山(운남 검천현 석종산)에는 五代(오대; 11세기)에 건립된 석굴이 있다. 여기에는 불상이 여러 개 있는데 여근석도 함께 있어서 신도들이 공양을 드리고 있다. 이 여근석을 白族(백족)은 ‘阿媧白(아앙백)’이라고 부른다. 그 뜻은 ‘갓난아이가 나오는 곳’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사찰에 불상과 여근석이 함께 있지만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백족의 청년남녀들은 이를 신성시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릴 뿐이다. 특히 매년 정월 1년에 한번 석종산에서 열리는 노래자랑대회 때는 인근에 사는 청년남녀들, 특히 부녀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치성을 드린다. 기혼자는 주로 득남을 위해서, 자식이 있는 부부는 더 많은 자식을 낳아 잘 키우게 해달라는 염원이다. 이들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여근석 위에 바른 뒤 장래 출산이 순조롭고 고통을 덜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石鐘山(석종산) 암자와 아양백

또 四川(사천)에는 樂山大佛(낙산대불)이 있다. 그 근처에는 산등성이가 이어져 있는데 암벽에 낙산대불 만큼이나 큰 와불이 새겨져 있다. 이 와불상은 왼쪽에 다리를, 오른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와불의 사타구니 부분에는 靈寶塔(영보탑)이 우뚝 솟아 있다.



멀리서 본 樂山(낙산)의 와불과 靈寶塔(영보탑)

왜 옛 사람들은 와불의 사타구니 위치에 탑을 세웠을까? 그것은 탑이 사악함을 누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탑은 남근숭배의 상징으로 탑의 위력은 남근의 위력이기도 하다. 고대의 탑에 득도한 고승의 사리를 안치했던 것도 탑이 남근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식의 영원성처럼 영생불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3) 《周易(주역)》의 괘와 문자의 기원

한편 《주역》의 8괘도 생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세기 이후 학자들이 《주역》과 8괘의 기원을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8괘 가운데 乾(건)과 坤(곤) 두 괘는 곧 양성 생식기의 기호이다. 1927년 周予同(주여동)은 ‘《주역》의 ☰는 바로 가장 분명한 생식기 숭배 시대의 부호이다. —는 남성의 성기관이고 --는 여성의 성기관이다’라고 했다. 음양관념은 바로 이런 생식기관의 모양에서 나왔는데, 《주역》에서는 남녀의 두 가지 성, 즉 음양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고 남녀 양성의 교합을 자연에 연결시켜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설명한다. 따라서 《주역》에서 양성의 교합은 성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역에 있는

다음 표현들은 모두 남녀의 성교를 뜻하는 것으로 생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남녀가 정기를 합하여 만물이 변화 생성한다.”
“구름이 가다가 비가 되니 사물의 모습이 흐른다.”
“천지가 교접하지 않으면 만물이 흥하지 않는다.”

《주역》은 이를 통해 우주만물의 생성을 찬미하고 양성의 교접을 천지감응으로 확대 해석했으며 인간의 생식행위를 사회, 정치, 도덕의 탄생 및 움직임과 연계시켜 예찬했다.

한편 남근숭배, 여근숭배는 문자의 기원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에서 조상 ‘祖(조)’자는 남자이름에만 사용되고 여자에게는 ‘妣(비)’자를 쓴다. 제사 지낼 때 지방에 쓰는 ‘妣’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남녀 조상의 대명사가 된 ‘祖’와 ‘妣’는 남근과 여근의 모양에서 나온 것이며 ‘姚(요)’자도 여성기의 형상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祖’자에 들어가 있는 ‘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갑골문에 나와 있는 ‘且’의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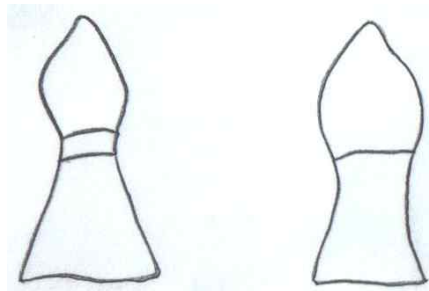


그림7

이 그림에서 우리는 남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은대 사람들은 ‘且’를 조상의 상징으로 보았다. 당시 조상에 제사지내는 제기로 쓰였고 지금은 농가의 조상 위패로 사용되는 뽕죽하고 기다란 나무판과 ‘且’는 그야말로 모양이 똑같다.

商代(상대) 이전에 중국에서는 조상에 대한 숭배가 신에 대한 숭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을 숭배했는데 이는 생식숭배의 범주에 들어간다. 조상숭배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주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다. 조상숭배의 이런 측면에서 조상의 형상이 남녀생식기의 형상을 닮은 이유나 생식관념을 내포하게 된 연유를 알 수 있다. 인간을 만든 女媧(여와)와 伏羲(복희)의 합일에 관한 신화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듯이 甲骨文(갑골문)에서 ‘祖’자가 남성기의 형상에서, ‘姚’자가 여성기의 형상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나온 이유도 알 수 있다. 결국 생식기숭배는 조상을 대표하며 성기구를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은 조상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으로 성기구 숭배는 바로 조상숭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와 商周(상주)시대의 陶祖(도조), 石祖(석조), 玉祖(옥조), 木祖(목조)가 수없이 발견되었지만 이들 ‘祖’는 남근의 상징물일 뿐 아니라 조상 신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도 중국 곳곳에 석조가 남아 있고 남방 소수민족 지역에는 석조숭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생식숭배와 조상숭배의 유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옛 사람들은 ‘也’자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許慎(허신)의 《說文解字(설문

해자》에 따르면 ‘也가 女陰(여음)이다’라고 했다. 也가 여성 생식기의 크고 작은 음순과 음핵을 나타낸다는 것은 고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也자는 고문자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古籀滙編(고주회편)》에 나와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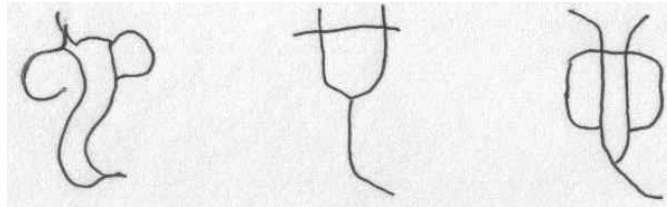


그림8

說文學(설문학)의 시조이며 《설문해자》의 주서 30권을 저술한 段玉裁(단옥재) 또한 이런 허신의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실 생식숭배와 조상숭배는 고대 인류의 공동체 신앙으로 기물로 성기를 상징하는 것은 고대 인류의 보편적 행위였다. 중국 고대의 생식숭배와 조상숭배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더 활발히 이루어진 면이 있다. 그 원인은 아마 중국의 黃河(황하)와 長江(장강)이 나일강,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과 같이 중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일 것이다. 황하 유역에는 옛부터 堯(요), 舜(순), 禹(우)의 治水(치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왔다. 고대인들이 홍수같은 재난에 직면해 죽음의 위협이 가중될수록 생식에 대한 갈구도 강렬해졌다. 이 때문에 중국 고대에는 생식숭배문화와 조상숭배문화가 성행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 전통문화의 특징이자 중국 고대문명의 기원과 발전의 방향이 고대 서양과 달랐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4. 성숭배3-성교숭배

옛 사람들은 성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대단히 신성한 것으로 보았기에 성교행위까지도 숭배했다. 그것은 성교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후손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성교는 옛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결코 느낄 수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쾌락을 주기 때문이기도 했다. 성교숭배는 인류의 시작부터 비롯되었지만 후대에 금욕주의가 성행하면서 성교숭배의 의미는 점차 부정되게 되었다.

원시시대의 고암화에는 성교와 관련하여 생동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암화는 옛 사람들이 성관계를 중시했고 숭배의 대상으로 신성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대의 석각, 기와부조, 청동기, 도기 등에도 성교숭배의 흔적과 후대에 대한 영향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의 성숭배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웠다. 후대의 종교에서처럼 성을 죄악시해서 금기시하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시인들의 성숭배는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미개하지만 그들은 성에 대해서 불순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숭배에 관해 그 미신적 의미와 편견은 버리되, 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신화 속의 성숭배

1) 여와의 인간창조 신화



伏羲女媧圖(복희여와도)

위의 사진은 고대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에 해당되는 伏羲女媧圖(복희여와도)이다. 두 명의 남녀가 뱀처럼 허리 아래의 하반신을 서로 꼬고, 상반신은 서로 어깨를 겨안은 채로 있다. 이 이야기는 《十八史略(십팔사략)》이라는 역사서에 나오는데 《列子(열자)》라는 책에는 복희가 사람의 머리에 뱀의 형상을 지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복희는 중국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三皇(삼황)의 한 사람이다. 삼황이란 인류에게 문명의 시작을 가능케 해준 전설적인 중국의 신들로서 伏羲(복희), 神農(신농), 黃帝(황제)를 일컫는다. 그 중 신농은 의약과 농업을, 황제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했다고 한다.

한편 복희여와도에서 여와는 고장난 천지를 보수하고 인류를 창조한 여신이다. 신화에 따르면 그녀는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었다. 빚다 빚다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진흙탕 속에 담겨진 새끼줄을 휘저으며 그것을 들어올렸다. 그랬더니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방팔방에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은 온전치 못해 인간세상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복희와 여와의 결합은 남매 간의 결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결합은 陽(양)과 陰(음)의 결합을 상징했으나 진한시대에 확립된 음양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히 부부관계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모습은 漢代(한대)의 畫像石(화상석), 즉 돌 위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후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복희여와의 신화를 통해 원시시대 중국에서 사회계급의 분화와 인구과잉 현상, 자연주의사상 등을 짐작할 수가 있다.

2) 혼인의 신-高媒(고매)

이후 여와는 ‘고매’ 즉 중매쟁이 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넓은 세상에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채운다는 것이 힘들어지자 여와는 인간을 짝지어 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아이를 낳아 기르게 하면 세상이 인간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와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신일 뿐 아니라 혼인을 주관하는 신의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魯史(노사)》에는 여와가 중매쟁이 신이 되어 제사의 대상이 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와가 사람들을 혼인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후세에 나라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고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인간을 창조한 여신인 여와에 대한 제사에서도 모계사회의 흔적이 나타난다. 고매는 자식을 주는 신으로 고매제사에 관해서는 《禮記(예기)》, 〈月令(월령)〉에도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仲春(중춘: 음력2월)에 玄鳥(현조: 제비등 검은 새)가 이를 때 소나 양, 돼지를 바치는 大牢(대뢰)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예기》에는 이 때 천자를 비롯한 황후와 아홉 후궁이 아들을 낳으라는 뜻으로 화살을 주고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대함을 짐작할 만하다. 이 玄鳥說話(현조설화)는 殷(은)나라 시조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이에 대해 《詩經(시경)》의 〈商頌·玄鳥(상송·현조)〉 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이 玄鳥(현조)에게 명령하니
현조는 내려와 상민족을 낳았네.
이들이 거주하는 은의 땅은 드넓어라.
그래서 帝(제)는 武湯(무탕)에게 명령하네.

한편 司馬遷(사마천)은 《史記(사기)》에서 현조의 알에서 商(상)민족의 선조가 나왔다고 한다. 사마천에 따르면 殷(은)왕조의 시조인 契(설)의 어머니는 용씨의 딸이다. 이름은 簡狄(간적)이라 했는데 帝嚳(제곡)에게 시집 가 후비가 되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다가 현조가 오는 날에 고매의 제사에 가서 아들을 점지해달라 빌고 제비알을 삼켰다. 이것이 바로 현조의 알이었고 그렇게 설을 낳게 되었다.

秦(진)의 시조 역시 그의 어머니가 현조알을 먹고 탄생했다고 한다. 이런 시조신화는 고구려와 매우 유사하다. 고주몽은 天帝(천제)의 아들이고 모친은 河伯(하백)의 딸 유화부인이었다. 유화부인은 방안에서 이상한 햇빛을 받은 후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온 것이 주몽이다. 이것은 은나라 간적이 현조가 낳은 알을 먹고 은나라 시조 설을 낳았다는 설화와 통하는 것이다.

한편 后稷(후직)의 어머니 姜嫄(강원)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은 뒤 임신했다고 한다. 이것이 感生帝(감생제)설화이다.

태초에 周(주)나라 백성을 낳은 이는 高辛氏 后妃 姜嫄(고신씨 후비 강원)이시라. 백성을 낳으심이 어떠했을까? 정성스레 제사를 받드사 아들 없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上帝(상제)의 엄지발자국을 따라가다가 크고 멈춘 것에 놀라 잉태했네. 더욱 삼가 낳으시고 길러내니 이 분이 후직이시라.(《시경》 〈生民(생민)〉)

고매는 郊禘(교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녀의 사당이 나라의 郊外(교외)에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漢書(한서)》, 〈戾太子傳(여태자전)〉에는 득남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媒宮(매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황실에서 고매제사를 중시한 것은 자식이 많아야 아버지의 덕이 자신에게 이어지고 황실이 계승된다고 보아서였다. 중국의 황제를 天子(천자; 하늘의 아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을 이어 천하를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

기의 덕이 후손에게 이어지기 바라는 뜻에서 고매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즉 고매제사를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고매제사가 끝나면 교외에서 청춘남녀들 사이에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는 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간적과 강원이 고매제사를 지낸 뒤 임신한 것은 명절날의 자유분방한 남녀교제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성을 신성시하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인이나 시조가 군혼잡교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감응탄생 설화를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이런 신화와 전설은 동서를 막론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여기서도 자손을 중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생식 숭배가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경국지색의 미인들

1. 李妍(이연)

중국에서는 절세미인을 가리켜 ‘傾國之色(경국지색)’이라고 한다. ‘傾’은 ‘기울게 하다’라는 뜻이니 ‘傾國’은 ‘나라를 기울게 하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色’은 미색의 의미이므로 ‘경국지색’이란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가리킨다. 이 말의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漢武帝(한 무제)를 모시던 李延年(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노래는 물론이고 편곡이나 작곡에도 뛰어난 가수였는데, 춤에도 탁월하여 무제의 총애를 듬뿍 받은 동성애인이었다. 어느날 무제가 여동생인 평양공주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갔는데 이연년은 한무제 앞에서 춤을 추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 둘도 없이 우뚝 섰네.
눈길 한 번에 성이 기울고 눈길 두 번에 나라가 기우네.
성을 기울이고 나라를 기울게 함을 어찌 몰랐을까?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을

눈길 한 번에 성을 기울게 하고 눈길 두 번에 나라를 기울게 하되, 그러면서도 남자가 성이 기울고 나라가 기우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국지색이다. 한 무제는 이 노래를 듣고 과연 이러한 여인이 있는지 물었다. 무제의 옆에 있던 누이 평양공주는 이연년의 누이동생 이연이 바로 그런 미인이라고 했다. 한무제는 즉시 그녀를 불러들였는데, 이연년의 노래대로 천하절색으로 춤도 잘 추었다. 그녀는 한무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이 여인이 바로 李妍(이연), 즉 이부인이다. 이 경국지색의 고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무제가 오빠, 누이동생과 양성애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부인은 얼마 후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나 몸이 약한 이부인은 산후욕으로 병석에 누웠다. 한무제가 문병을 가니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남편에게 보일 수 없다’면서 이불을 쓰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가 숨을 거두었다.

세월이 지났지만 한무제는 이부인을 잊지 못했다. 어느날 지방 군현 순시에 나섰다가 그는 汾河(분하)와 黃河(황하)가 만나는 부근(山西省(산서성) 하동군 남부)에서 선상 연회를 열었다. 연회석상에서 한무제는 흥에 취해 <秋風辭(추풍사)>라는 노래를 불렀다. 제목을 풀어보자면 ‘가을 바람에 부치는 노래’가 되겠는데 훗날 중국문학의 절창이 되었다. 이 시에 나오는 ‘佳人(가인)’은 바로 병으로 먼저 작고한 이부인을 기리는 말이다.

가을 바람이 일어남이여, 흰구름이 날도다.
초록이 누렇게 떨어지고 기러기 남으로 돌아간다.
난초는 빼어나고 국화는 향기로워라.
佳人(가인)을 그리어 잊지 못하노라.
누선을 띄워 汾河(분하)를 건너는데
中流(중류)에 비껴 흰 물결 날리노라.

피리소리 북소리는 울고 노 저어 노래하니,
즐거움 다한 곳에 슬픈 정이 너무 많아라.
젊음이 다한 곳에 슬픈 정이 너무 많아라.
젊음이 얼마이겠는가, 아! 내 늙었구나.



1983년작 鏡心(경심)의 <秋風辭意(추풍사의)>

먼저 떠나보낸 부인에 대한 한무제의 사랑이 절절이 묻어나는 절창이다. 그러면 이연말고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옛 중국의 미인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

2. 妹喜(말희)

桀王(걸왕)은 중국 夏(하)나라의 악명 높은 폭군 중 한 명이다. 걸왕 때 궁중에는 여악과 여자 배우가 3만이나 되었다. 이들과 잔치를 벌이면 풍악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는지 새벽부터 궁궐 문 앞이 시끄러웠음은 물론 큰 삼거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나라 걸왕과 말희의 인연은 걸왕이 有施氏(유시씨)의 소국을 정벌하면서 시작되었다. 힘이 약했던 유시씨의 나라에서는 많은 진상품과 함께 ‘말희’라는 미녀를 바쳤다.



妹喜(말희)

걸왕은 말희를 매우 총애하여 그녀를 위해 옥으로 장식한 집(瓊室; 경실)과 상아로 장식한 회랑인 象廊(상랑), 보석과 상아로 장식한 瑤台(요대)라는 궁궐을 짓고 옥 침대(玉床; 옥상)를 만들어 밤마다 향락에 빠져들었다. 고기로 산을 만들고 옥포로 숲을 조성했으며 배가 다닐 수 있는 술 연못을 만들고 땅을 파서 夜宮(야궁)을 만들어 남녀를 섞어 놓았다. 잔치와 놀이가 매일 계속되자 하나라는 점점 기울어갔다. 이를 보다못한 신하 關龍逢(관용봉)이 충심으로 간했지만 걸왕은 그의 목을 베었고, 伊尹(이윤)이 목숨을 걸고 간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윤은 殷(은)나라로 도망쳐서 湯王(탕왕)을 만들어 섬겼다. 탕왕은 걸왕의 향락으로 하나라가 기울어간다는 이윤의 말을 듣고는 이윤을 앞세워 夏(하)나라로 쳐들어왔다. 과거 걸왕은 탕왕을 구금했다가 석방해 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탕왕이 쳐들어오자 걸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걸왕은 鳴條(명조)의 싸움에서 탕왕에게 크게 패하고 말희와 함께 보석을 챙겨서 배를 타고 南巢(남소)로 도망갔다. 그러나 추격해온 탕의 병사들에 사로잡혀 추방되었다. 시중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사치가 몸에 배어 있던 걸왕과 말희는 굶어도 스스로 일할 줄 몰랐다. 결국 두 사람은 歐牛山(와우산)에서 굶어죽게 된다. 이렇게 470여 년을 이어오던 하왕조는 멸망했다.

3. 妲己(달기)

殷(은)나라 紂王(주왕)은 준수한 외모에 기골이 장대하여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황음무도하고 포악한 그는 특히 달기를 총애하였다. 《情史(정서)》권5와 《竹書紀年(죽서기년)》의 기록에 따르면 달기는 주왕을 피어 궁중 안의 바닥에 자갈을 평평하게 깔 연못을 팠는데 연못 안에는 술을 가득 부었다. 이를 ‘酒池(주지: 술연못)’라고 했는데 연못 사방에는 비단을 감은 나뭇가지에 고기를 매달아두고 ‘肉林(육림)’이라 했다. 이른바 ‘酒池肉林(주지육림)’의 고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왕은 달기와 별거벗고 ‘주지’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술을 퍼 마시고 ‘육림’에서 손 가는 대로 고기를 따 먹으며 놀았다. 주지육림을 만들기 위해 그는 백성들을 혹독하게 착취했다.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鹿臺(녹대)’

라는 궁궐을 짓고 鉅橋(거교)라는 창고에 곡식을 채우고 개, 말과 기이한 물건들로 궁실을 가득 채웠다. 또한 7년에 걸쳐 瓊宮(경궁)과 玉門(옥문)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3리에 달하고, 높이는 이천 척이나 되었다. 沙丘(사구)의 苑臺(원대: 제왕의 화원)를 넓히고 궁중의 저잣거리 아홉 군데에서 밤 늦도록 술을 마셨다. 주왕은 달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멋대로 죽이는 것은 물론 산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짐승에게 먹이기도 했다.

보다못한 주왕의 이복 형 微子啓(미자계)가 그에게 충고를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도리어 미자계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성을 떠나 숨고 말았다. 주왕의 삼촌 比干(비간)이 그에게 충고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던데 당신 심장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는지 한번 보자’며 부하에게 명하여 비간을 죽이고 그의 심장을 꺼내 보았다. 주왕은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라는 달기의 말에 현혹되어 ‘炮烙之刑(포락지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만들었다. 주왕은 구리로 기둥을 여러 개 만들어 나란히 늘어놓고 그 위에 기름을 칠하고 기둥 아래에는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피워놓았다. 이것이 이른바 ‘炮烙(포락)’이라는 형구인데, 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이 달아오르면 그에게 불만을 품은 신하와 백성들의 옷을 발가벗겨서 건너가게 했다. 포락지형을 당한 사람은 구리기둥에 미끄러져 발버둥치며 빠져 살이 타는 고통을 겪다가 숨이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잔악무도한 통치로 주왕은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안 周(주)나라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 은나라를 침략했다. 이때 주왕은 달기와 녹대에서 한참 술을 마시던 참이었다. 그는 황급히 군사 70만을 편성하여 전장으로 달려갔으나 주왕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다.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자 주왕은 급히 朝歌城(조가성)으로 도망갔다. 운명이 다한 것을 안 그는 죽기로 결심했지만 죽은 뒤 자기의 시신이 발견되어 훼손당할까봐 궁중의 모든 폐옥을 몸에 걸친 채 20미터 높이의 녹대로 올라갔다. 녹대 아래에 마른풀을 쌓아 불을 지르게 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주 무왕은 조가성으로 진격했고 폐허가 된 녹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주왕은 보이지 않고 검게 탄 시체만 찾아냈다. 무왕은 그것이 주왕의 주검임을 알고, 화살을 쏘고 칼로 몇 번이나 찌른 다음 도끼로 시체의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매달았다. 주왕은 스스로 육신을 불살랐지만 죽은 뒤에도 그 주검이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은나라는 멸망을 고하게 되었다.



姐己(달기)

4. 王昭君(왕소군)

왕소군은 한나라의 양가집 딸로 원제의 공녀로 들어갔다. 그녀는 재주와 용모를 갖추었으나 황제의 눈에 띄지 않아 충애를 받지 못했다. 《西京雜記(서경잡기)》에 의하면, 당시 황제는 공녀의 초상화를 보고 골랐는데 공녀들은 화공 毛延壽(모연수)에게 뇌물을 바치고 초상화를 잘 그려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왕소군은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추하게 그려져서 그래서 황제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당시 匈奴(흉노)의 침략에 고민하던 한나라는 흉노를 다독거리기 위해 여자를 선발해 보내고 있었다. B.C 33년, 공녀 왕소군이 선발되어 흉노의 왕 呼韓邪(호한야)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황제는 왕소군이 떠나기 전에서야 그녀의 실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절세의 미모에 단아한 태도를 가진 경국지색의 미인이 후궁으로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다. 황제는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흉노에게 선발해 보내기로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 왕소군의 초상화가 엉터리라는 것을 안 원제는 크게 노하여 초상화를 그린 화공을 참형에 처했다.



王昭君(왕소군)

왕소군이 한나라를 떠나 흉노의 땅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멀리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았다. 이 때 문득 고향생각이 났던지 그녀는 말 위에서 비파로 이별곡을 연주했다. 이때 남쪽으로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 곡조를 듣고 땅으로 툭 떨어졌다고 한다. 왕소군의 미모를 보느라 기러기가 날갯짓하는 것을 잊었다는 전설이다. 어쨌든 왕소군은 이 전설에서 落雁(낙안), 즉 '떨어진 기러기'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왕소군은 흉노로 가서 闕氏(연씨)부인이 되었고, 아들 하나를 낳았다. 호한야가 죽은 뒤에는 호한야 본처의 아들인 復株累(복주루)에게 재가하여 두 딸을 낳았다. 이러한 왕소군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윤색되어서 흉노와의 화친정책 때문에 희생된 비극적 여주인공으

로 전해지게 되었다.

5. 趙飛燕(조비연)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날씬한 여인이 있다. 바로 ‘나는 제비’라는 뜻으로 본명 趙宜主(조의주) 대신 趙飛燕(조비연)으로 불린 여인이다. 그녀는 중국 사대미인 중의 하나로 꼽혀왔는데 여기서는 그녀와 함께 한 成帝(성제)의 후궁이었던 반첩여의 이야기도 함께 해보기로 하자.

여색을 밝혔던 성제 劉騫(유오)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다. 사방으로 유람을 다니던 어느날 良阿公主(양아공주)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공주는 歌女(가녀) 수 명을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했다. 그 중 유달리 고운 목소리와 빼어난 춤솜씨를 가진 여인이 눈에 띄었다. 성제는 환궁한 후 공주에게 그 여인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온 여인이 바로 조비연이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飛燕(비연)’ 즉 ‘나는 제비’라는 별명은 어떻게 붙게 되었을까?

성제가 太液池(태액지)에 큰 배를 띄우고 즐길 때의 일이다. 성제는 조비연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시랑인 馮无方(풍무방)에게 笙(생)을 불어 반주를 하게 했다. 배가 태액지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광풍이 불어 그녀가 휘청거렸다. 황제는 급히 그녀의 한쪽 발목을 붙잡았는데 춤의 삼매경에 빠진 그녀는 춤추기를 멈추지 않더니 성제의 손바닥 위에서 너울너울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녀를 ‘비연’ 즉 ‘나는 제비’라고 부르게 되었다.



趙飛燕(조비연)

원래 성제에게는 황후 허씨가 있었고 班婕妤(반첩여)라는 후궁도 있었다. 반첩여는 미모와 덕성을 갖춘 것은 물론 詩賦(시부)에도 뛰어났다. 성제는 이런 반첩여를 매우 총애했으나 조비연이 온 뒤에는 그녀에게로 마음이 옮겨갔다. 조비연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趙合德(조합덕)이다. 조씨자매는 차례로 성제를 모셨는데 성제는 다른 후궁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씨자매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치지 않았다. 황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조씨자매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흉계를 꾸몄다고 생각했다. 당시 장안에 떠돈 노래에는 ‘燕飛來 啄皇孫(연비래 탁황손)’라는 가사가 있었다. ‘제비가 날아오더니 황손을 쪼았더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씨자매가 흉계를 꾸며 황손을 해한 것을 비꼬는 말이었다. 그러나 성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오히려 이즈음 엉뚱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된다. 후실인 반첩여가 황후 허씨와 짜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후궁들을 저주하고 임금을 중상모략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믿은 성제는 격분해서 황후의 인수를 회수하고 長信宮(장신궁)에 유폐시켜버렸다. 그러나 이 또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조씨자매가 반첩여를 무고한 것이었다. 성제는 반첩여를 불러 ‘네가 후궁들을 저주하고 황제를 중상했느냐’고 직접 심문했다. 황제의 추궁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만일 귀신에게 지혜가 있다면 폐하를 저주하는 일을 반드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귀신에게 지혜가 없다면 주술을 시행해도 일에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귀신 따위가 어찌 황제를 해칠 수 있겠느냐는 이런 현명한 대답으로 반첩여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오히려 성제는 반첩여에 대한 의심을 풀고 황금 100근을 하사했다. 이렇게 반첩여의 혐의는 풀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옛날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처지가 아니었다. 총명한 반첩여는 허황후의 말벗이 되겠다고 자청했고 성제의 곁을 떠나 황후에게로 갔다. 거기서 시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냈으니 이때 지은 시가 怨歌行(원가행)이다. 이 시는 자신을 총애하던 성제의 사랑이 점차 조비연에게로 옮겨가면서 쓸쓸해진 자신의 처지를 철 지난 가을부채에 비유하는 내용이다.

새로 자른 제나라 흰 비단이
회고 깨끗하기가 서리나 눈 같네
재단해서 합환선을 만드니
고르게 둥근 것이 보름달과 같네
님의 품과 소매를 나들며
흔들리며 미풍을 일으켰지만
늘 두려운 것은 가을이 와서
산들바람이 더위를 앗아갈까 함이네.
대나무 상자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신세
애뜻한 정은 도중에 끊어지고 말았네.

한편 황후와 반첩여를 몰아낸 조비연은 황후의 지위에 올라 趙皇后(조황후)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한 비연은 세상에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성제가 조비연의 치마폭에 싸여 보낸 세월은 겨우 10년, 성제는 어느날 조합덕의 침상에서 급사했다. 성제의 죽음에 조합덕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조합덕은 불안했다. 자신이 믿었던 황제가 갑자기 죽었으니 과거 그녀가 황후와 여러 후궁들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보복을 받을까 두려웠던지 그녀는 독주를 마시고 자결했다.

성제가 죽고 王莽(왕망)이 정권을 잡았다. 조합덕이 자결한 뒤 언니 조비연의 신분은 계속

하락하여 庶人(서인)이 되었고 결식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그녀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와 달리 황태후의 말벗이 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던 반첩여는 성제가 죽은 뒤 그의 무덤을 돌보는 정절을 보였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40여 세의 나이로 처연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성제와 비연, 합덕 두 자매의 성애생활을 묘사한 소설로 한대에 伶玄(영현)이라는 작가가 지은 《飛燕外傳(비연외전)》이 있다. 이 소설이 나온 뒤 중국에는 궁중생활의 성애를 폭로하는 소설이 계속 등장하게 되었다.

6. 褒姒(포사)

다음으로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농락한 포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포사는 B.C 8세기경 周(주)나라 제2대 幽王(유왕)의 황후로, 절세의 미녀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탄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진다. 하나라 말년, 용 두 마리가 왕궁에 나타나 ‘포나라의 두 임금이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어놓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상자에 넣고 고이 보관하고 열어보지 않았다. 주나라 厲王(여왕) 대에 이르러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때 실수로 용의 침이 흘러나왔다. 용의 침은 검은 도마뱀으로 변하여 조정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검은 도마뱀은 한 소녀와 마주쳤다. 그 뒤 소녀에게는 태기가 있었는데 40년이 지나서야 여자 아이를 하나 낳았다. 소녀는 이 아기를 갖다버렸는데 褒(포)나라 사람이 아기를 주워와 집에서 키웠다. 그녀가 바로 포사였다.

포사는 분명 역사 속 인물이지만 설화 속의 포사는 요녀로 나타날 뿐이다. 이 설화는 나라를 기울게 한 미모를 지녔던 팜프파탈(요녀) 포사에 대해 후세인들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사는 어떻게 주 유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주 유왕은 달기에 빠진 폭군 주 무왕처럼 난폭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 우매한 군주가 간신배로 둘러싸여 있듯이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가 여색에 빠져 조정일을 돌보지 않자 포성 사람 褒珝(포향)은 유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에게는 洪德(홍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홍덕은 포사라는 미인을 이용해 아버지를 구하려는 계책을 세웠다. 그는 포사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살을 찌운 뒤 유왕에게 진상하며 아버지를 풀어달라 간청을 했다. 주나라 유왕은 포사의 미모를 보더니 한눈에 반해서 포향을 풀어주고 관직까지 복원해 주었다. 이후 포사는 끄찍이도 유왕의 총애를 받았다. 포사는 유왕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가 伯服(백복)이다.

그런데 천하절색 포사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 답답해진 유왕은 어떻게 하면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볼까 싶어 악공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며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서 웃게 하려고 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문무백관에 명령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포사를 웃게 하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노라고 했다. 이 때 간사한 虢公 石父(궤공 석부)가 나타나 포사를 웃게 하려면 봉화놀이가 좋다고 했다. 전쟁이 났다는 신호로 엉터리 봉화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봉화를 올리자 제후들이 驪山(여산) 앞으로 황망히 달려왔다. 그런데 와보니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풍악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를 본 제후들은 허탈해 하며 돌아갔다. 포사는 이런 황당한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다. 포사의 웃음을 보고 감격해 마지않은 유왕은 궤공 석부에게 천금을 하사하니 여기서 ‘千金買笑(천금매소; 천금을 주고 웃음을 산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주 유왕에게는 원래 申后(신후)라는 왕후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申伯(신백)은 자기 딸이 왕후로 책봉되었을 때 申侯(신후)로 봉해졌다. 유왕은 왕후와의 사이에 태자 宜臼(의구)를 두었다. 그러나 유왕은 포사를 위해 왕후를 폐하고 포사를 왕후로 앉혔다. 그리고 태자마저 폐하고 포사가 낳은 아들 백복을 새로운 왕태자로 책봉했다. 폐비는 아들 의구를 데리고 외가 申國(신국)으로 쫓겨났다. 딸과 외손자가 폐위되어 돌아오자 신백은 앙심을 품었다. 당시에는 오랑캐 西戎(서융)이 강성했는데 신백은 서융의 군대를 청했다. 呂(려)등의 나라와 연합하여 주나라를 치기로 한 것이다.

서융이 15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나라 鎬京(호경)을 향해 쳐들어왔다. 주 유왕은 다급히 봉화를 올리게 했으나, 제후들은 이 봉화가 또 포사를 웃기기 위한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치 늑대가 왔다고 계속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다 낭패를 당한 양치기소년처럼 유왕이 아무리 봉화를 올리고 기다려도 원병이 오지 않았다. 서융의 군대가 몰려오자 유왕은 작은 수레에 포사를 태우고 뒷문으로 도주했지만 이들에게 붙잡혀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서융의 왕은 포사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그는 포사를 죽이지 않고 수레에 태워 처소로 데려와 같이 지냈다. 그는 주나라를 점령했음에도 회군하지 않고 포사와 행락을 일삼았다. 그러자 입장이 난처해진 신백은 晉侯(진후), 衛侯(위후), 秦侯(진후)등 다른 제후들에게 밀서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주나라로 진격하도록 했다. 포사와 소일하며 시간을 끌던 서융의 왕은 이를 보고 놀라 포사를 남겨두고 도주했다. 결국 포사는 신백에게 잡혀죽기 전에 목을 매 자결했다. 훗날 당나라 시인 胡曾(호증)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총애만 믿고 교태가 많아 자유를 얻었고
 여산에 봉화를 올리게 해 제후들을 농락했네
 웃음 한 번에 나라 기울게 될지는 알았지만
 화려한 처소에 오랑캐 모래먼지 가득할 줄은 몰랐으리



褒姒(포사)

7. 西施(서시)

중국역사 속 여러 미녀 가운데 서시는 가장 손꼽히는 미녀로 통한다. 서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서시에게는 속병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마을의 추녀가 이를 보고 서시처럼 예뻐지려고 자기도 가슴에 손을 대고 찡그리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마을의 부자는 이것을 보고 대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처자를 데리고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소 과장된 이야기로 보인다. 이와 달리 서시와 관련하여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듯한 이야기도 있다. 서시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녀를 본 궁전의 경비병은 아름다움에 혼절했고, 범려가 그녀를 보는데 1전씩 돈을 내도록 했는데 모인 돈이 산처럼 쌓여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또 하루는 서시가 강가에 갔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맑고 투명한 강물에 비치었다. 이를 본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을 잊고 천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서시는 浸魚(침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西施(서시)

서시가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臥薪嘗膽(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춘추시대에는 越(월)나라와 吳(오)나라가 있었다. 삼국지에도 나오는 이 두 나라 중 오나라에는 闔閭(합려)가 왕으로 있었다. 기원전 496년 句踐(구천)이 월왕이 되자 오왕 합려는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합려는 대패하고 오히려 발가락에 독화살을 맞고 죽게 된다. 오나라에는 합려의 아들 夫差(부차)가 왕위를 계승했다. 부차는 3년상을 치르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노라 다짐했다. 부차는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자리를 펴고 자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겼다. 수년 뒤 부차는 월나라를 침략했다. 철저히 준비한 오나라 부차의 군대에 월나라 군대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월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하자 구천은 미인과 뇌물을 오나라 군대의 대장 伯嚭(백비)에게 보내 화평을 청했다. 오왕 부차는 결국 백비의 말을 들어 미인과 뇌물을 받기로 하고 화평을 맺었다. 월왕 구천은 포로가 되어 오나라로 끌려갔고 월나라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구천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온갖 모욕을 받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오나라 부차가 병으로 자리에 드러눕자 포로로 와있던 그가 자진해 나갔다. 부차의 대변맛을 보고 건강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천은 손으로 변을 찍어 무릎을 꿇은 채 혀로 핥았다.

“곧 병세가 쾌차할 것입니다. 변은 향기가 나면 위험하고 악취가 나면 좋은 것입니다.”

부차는 구천의 정성에 감동했고 월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구천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伍子胥(오자서)는 반대했다. 구천이 월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라 했으나 부차는 결국 구천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구천은 포로생활을 마치고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이를 악물었다.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며 잠도 자지 않고 쓴 쓸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핏물이며 언젠가 이 수모를 갚겠노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臥薪嘗膽(와신상담), 즉 ‘땀나무 위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보며 굴욕을 되새긴다’는 성어이다. 또한 구천은 일반 백성들처럼 절제있는 생활을 했다. 오나라가 궁실을 축조하면 인부와 재물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부차의 환심을 사는 한편 부차를 무너뜨릴 계책을 세웠다. 구천의 책사 范蠡(범려)는 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진해서 미인을 찾아 나섰다. 범려는 6개월의 노력 끝에 西施(서시)와 鄭旦(정단)을 선발했다. 그는 두 여인에게 거문고, 바둑, 서예, 그림그리기와 가무, 방중술 등을 3년간 가르쳤다. 이렇게 길러진 서시와 정단은 오왕 부차에게 진상되었다. 부차는 특히 절세의 미녀 서시를 보고 반해 흠뻑 빠져 들었다. 두 여인이 함께 궁에 들어왔는데 서시만 오왕의 총애를 독차지하자 정단은 울화병이 생겨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이다.

부차는 서시를 위해 姑蘇臺(고소대)라는 누각을 짓고 금은으로 장식한 館娥宮(관아궁)을 지었다. 그리고 響屨廊(향섭랑)이라는 복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 복도 아래에는 널빤지를 깔아서 서시가 지나가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다. 부차는 정사를 돌보다가도 향섭랑에서 서시 오는 소리가 나면 그녀를 품에 안았다. 또 관아궁 주변에는 翫花池(완화지)와 翫月池(완월지)라는 연못을 만들고 吳王井(오왕정)이라는 우물을 팠으며 서시의 이름을 따 西施洞(서시동)이라는 동굴까지 만들었다. 또 香山(향산)이라고 하여 향나무를 가득 심은 假山(가산)을 인공으로 만들었다. 靑龍舟(청룡주)라는 배를 호수에 띄워 날마다 서시와 타고 즐기며 정사를 소홀히 했다. 서시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한 부차의 행락은 결국 오나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되었다.

월왕 구천은 잘 정비된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를 침략했다. 부차는 참패했고 구천은 서시를 데리고 월나라로 돌아왔다. 그런데 구천의 부인은 남편이 서시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불안해졌다. 서시가 부차의 뉘를 빼놓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일을 잘 알기에 남편까지 흘릴까 봐 서시를 돌에 매달아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다고 한다.

8. 楊貴妃(양귀비)

양귀비는 원래 壽王(수왕) 李瑁(이모)의 비로 현종의 며느리였다. 17세 나이에 수왕에게 간택되어져 입궁한 뒤, 정원에서 화려하게 핀 꽃을 감상하다가 덧없이 지나가는 청춘이 아쉬워 꽃에게 말했다.

“꽃아 너는 해마다 피어나지만 나는 언제 빛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꽃을 어루만지는데 含羞花(함수화)를 건드렸다. 함수화는 입을 스프르르 말아 올렸다. 이때 궁녀가 그 광경을 보고 ‘양귀비가 꽃과 아름다움을 견주었는데 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더라’는 소문을 냈다. 그래서 양귀비에게는 羞花(수화)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당시 당나라에서 三白(하얀 이마, 하얀 코, 하얀 턱)과 三紅(붉은 입술, 붉은 뺨, 붉은 손톱)이 미인의 기준이었던데 미루어보면 양귀비가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양귀비는 서시보다 1200년쯤 뒤의 인물인데 정사에는 그녀가 절세의 풍만한 미인이며 가무에 뛰어나고 총명함을 겸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楊貴妃(양귀비)

어느 환관이 이런 수 왕비의 아름다움을 현종에게 진언했다. 현종은 운천궁에 온 기회에 양귀비를 보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했다. 그런데 장차 아들의 부인, 즉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종은 세인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女冠(여관; 여자도사)으로 지내게 했다. 그 뒤 다시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27세에 정식으로 귀비로 책립하였다.

귀비가 된 이후에도 그녀와 꽃에 얽힌 일화가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현종이 양귀비와 궁녀들을 이끌고 太液池(태액지)라는 연못을 산책하다가 물었다.

“연꽃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비보다 아름답겠는가?”

궁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양귀비가 더 아름답다고 했다. 옛날 중국에서는 미인을 가리켜 解語花(해어화: 말을 할 줄 아는 꽃)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양귀비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물론 세월이 지나 이 말의 뜻이 변하여 후대에는 기생을 해어화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양귀비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 현종이 얼마나 양귀비를 아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일화가 전한다. 그녀는 특히 남방 특산의 荔枝(여지)라는 과일을 좋아했다. 여지는 신선함이 몇 일 못가기 때문에 현종은 신선한 여지를 그녀에게

맛보이기 위해 산지에서 長安(장안)까지 여러 곳에 역을 설치하고 몇일 밤 몇일 낮 말을 달려 실어오게 했다.

이런 현종의 총애를 배경으로 그녀의 사촌오빠 楊釗(양소)는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일족들도 전부 고관이 되었다. 그녀는 李白(이백)같은 궁정시인들한테 둘러싸여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당대의 고관이었던 安祿山(안록산)이나 高力士(고력사)도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을 했다. 현종은 중국 山西省(산서성)의 온천에 華清宮(화청궁)을 짓고 양귀비와 거울을 함께 보내는 등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이 와중에 양귀비의 오빠 楊國忠(양국충)이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李林甫(이임보)가 권력을 잡았다. 현종이 국사는 뒷전이고 날마다 환락에 빠져 지내니 당나라의 국세는 점점 기울어만 갔다. 그러다 范陽(범양: 현재의 북경)에서 安史(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현종은 놀라서 소수의 호위병과 양국충, 양귀비 등을 데리고 장안의 서쪽 馬嵬驛(마외역)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경호하던 현종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양씨 일족 모두를 죽이라고 강요했다. 결국 양국충을 비롯한 일족들의 목이 베어졌고 양귀비는 스스로 마외역관 앞 배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이 때가 양귀비의 나이 38세였다. 9년 간의 내란이 끝나 수도 장안으로 돌아온 현종은 양귀비의 화상을 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훗날 수많은 시와 소설, 희곡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가 읊어졌다. 비운에 간 그녀를 이백은 활짝 핀 모란에 비유했고 白樂天(백락천)은 長恨歌(장한가)에서 현종이 양귀비와 보낸 정겨운 시절을 노래하고 있다. 장한가란 '오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질 무렵, 간곡히 다시금 전할 말 부탁했는데
그 말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맹세의 말 있었네.

7월 7일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들 모르게 한 약속

하늘에서는 比翼鳥(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連理枝(연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높은 하늘 넓은 땅 다할 때가 있건만

이들의 슬픈 사랑의 恨(한) 끝없이 계속되네.

이 시에는 사랑의 기쁨과 함께 홀로 남겨진 자가 살아 있는 한 품고 있어야 하는 외로움과 슬픔도 잘 드러난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의 남쪽 땅에는 비익조가 산다고 한다. 비익조는 눈도 날개도 한 쪽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암수가 좌우 일체가 되어야 날 수 있는 새다. 즉 비익조는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새'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시에 나오는 연리지는 '원래 다른 나무지만 서로 가지가 맞닿아 하나가 된 나무'를 말한다. 이렇게 천하절색 양귀비는 짧은 생을 마쳤지만, 비익조와 연리지에 비유될 만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오랫동안 가송되었다.

9. 貂蟬(초선)

초선은 정사는 물론 소설 《三國志演義(삼국지연의)》에도 등장하는 여인이다. 한말의 대신 王允(왕윤)이 董卓(동탁)과 呂布(여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동탁에게 쓴 미인계의 여인

이 바로 그녀였다. 왕윤은 동탁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동탁에게는 1만 명의 군사로도 대적하기 힘든 용맹한 여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왕윤은 미녀 초선을 동탁에게 헌사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했다. 이렇게 초선은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데 성공했고 동탁은 제거되었다. 이런 계략이 성공한 뒤에 초선은 달에게 왕윤의 무사기원을 빌었다. 그런데 때마침 구름이 달을 가렸고 왕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초선의 미모에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렸구나’라고 했다. 여기서 ‘달이 숨다’라는 閉月(폐월)이라는 말이 초선의 대명사가 되었다. 왕윤의 미인계는 이렇게 성공했지만 초선에게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관우는 ‘이 여자는 화근덩어리이니 살려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초선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에는 초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동탁의 ‘시비’라고만 되어 있다. ‘여포가 (동탁의) 시비와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布與卓侍婢私通)’는 대목이 그것이다. 여기서 ‘초선’이라는 이름은 《삼국지연의》를 지은 나관중 또는 누군가에 의해 각색되어 삽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비의 본명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따라서 초선은 실존하지는 했지만 초선이라는 이름은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동탁의 시비는 초선으로 가정되는데 정사 《삼국지》와 그녀에 관한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초선은 황제가 바뀐 뒤에도 궁에 남았으므로 후궁이 아닌 일반 궁녀였고, 중국의 4대 미인 가운데 실제로는 초선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달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목민족이었던 여포는 전장에 오래 있었고, 유목민족은 미모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하므로 그녀가 건강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선은 미모를 가졌겠지만, 중국의 4대 미인에 들 만큼의 경국지색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초선은 《삼국지연의》에 나타난 모습처럼 유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국지연의》에서 그녀는 동탁 소유의 시비로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일을 ‘죽을 죄’라고 자복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여포와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벌인 일 아닌가? 이는 여포도 마찬가지로 초선과는 서로 진정 사랑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선은 동탁과는 정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탁의 애첩이었다면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힘들었을텐데, 그것까지 피해서 여포와 정을 통하는 일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초선은 자유 연애를 실천한 정열적인 여인으로 볼 수 있다.



貂蟬(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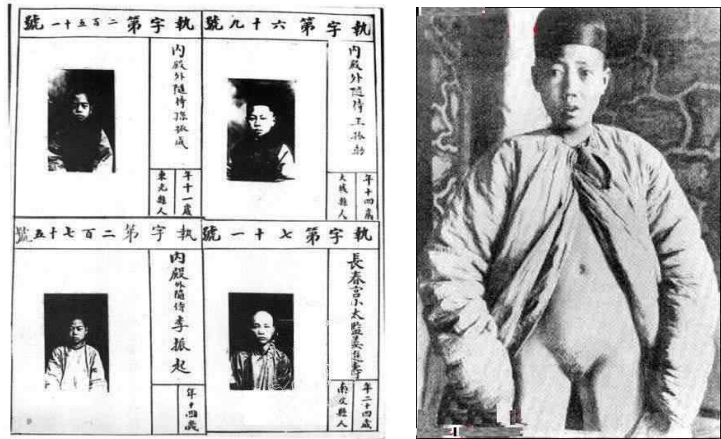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고대 중국의 경국지색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 보았다. 중국에는 위에서 예로 든 미녀들 가운데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를 4대 미녀로 꼽아왔다. 물론 초선의 경우는 옛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외모보다 건강미가 돋보이는 미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후세의 사람들은 나라를 기울게 한 책임을 이 미녀들에게 돌리고 나라를 기울게 한 미색(경국지색)이라며 그녀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남성들의 편견이 다분히 작용한 것이다. 통치계급이 된 여성들이 포악한 황제와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일조한 적도 있지만 원래 이들은 황제의 노리개이자 피착취자로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라를 기울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음무도한 황제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3. 환관, 변태와 방중술

1. 환관

환관은 거세된 남자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나 권력자 밑에서 부려지던 자를 말한다. 기원전 45세기 경 메소포타미아 남쪽 수메르 지방의 '라가시'라는 도시국가에서 성불구자를 궁중 노비로 썼다는 것이 환관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이후 중동지방으로부터 로마,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도 이 제도가 나타났는데 성불구자를 궁중 노비로 쓰는 지역을 살펴 보면 공통점이 나타난다. 목축문화가 발달하여 동물에 대한 거세 경험이 있는 지역 또는 冑刑(궁형)과 같은 거세 형벌이 있는 지역이거나 전쟁이 잦은 지역인 것도 특징이다. 이것은 전쟁 부상자 중에 성불구자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쟁에서 진 쪽 병사들의 고환과 성기를 잘라서 산처럼 쌓아놓고 승리를 자축했다고 한다. 중국도 초창기에는 적의 포로나 죄수가 환관들의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환관제도는 역사상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기원전 1300년 경 殷(은)나라 武丁王(무정왕) 때 서쪽지방의 羌人(강인)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 환관은 흔히 內官(내관), 內侍(내시)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물론 거세를 한 남자를 일컫는다. 거세의 방법으로는 고환이나 성기를 모두 자르기도 하고 하나만 자를 수도 있었는데, 어느 경우에도 신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환관을 둔 지배층은 모두 다 자른 완벽한 환관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환관제도를 만든 것은 제왕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왕이나 권력자 옆에서 시종드는 남성들이 후궁이나 궁녀와의 관계를 의심받는 혐의를 없애기 위해 아예 남근을 없앤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9세기 신라 흥덕왕 때 宦堅(환수)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첫 부인인 장화부인이 세상을 뜨자 정목왕후로 추존하였다. 임금이 낙담하여 궁녀를 포함한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는데 임금 주위에는 다만 宦堅(환수) 몇 명만 있었을 뿐이었

다.”

여기서 ‘환수’라는 것은 원래 ‘더벅머리의 미친한 벼슬자리’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처럼 죄인을 거세하는 궁형이라는 형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로 성불구자가 된 남자가 궁중에 노비로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환관제도를 시행한 것은 고려 때부터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는 중국의 환관제도를 그대로 그입하여 벼슬도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환수’가 ‘환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만큼 제법 높은 관직을 가리킴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직책의 차이가 내시와 환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에서 ‘태감’이란 내시나 환관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환관은 궁에 들어가면 과도한 노역에 종사하면서 태감 우두머리나 주인의 폭력과 욕설을 견뎌야 했다. 이처럼 평생 노예같은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늙고 병들어 노동력을 상실하면 궁밖으로 쫓겨났다. 이들이 궁을 나오면 오갈 데가 없어 절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세를 한 자는 절단된 음경을 방부처리해서 상자 속에 넣고 밀봉한다. 이것을 방의 대들보 위에 걸어놓고 ‘보배’라고 불렀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이를 다시 몸에 봉합한 뒤 함께 매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승에 계신 조상님 뵈면 면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身體髮膚, 受之父母(신체발부, 수지부모)’, 즉 신체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는 거세를 해서 자손을 끊은 것이 큰 불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기를 제거한 환관은 남성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고 중성화된다. 수염이 빠지고 음성이 변한다. 이런 불구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재물욕심이 많고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만한 체형이 많으나 피부에 탄력이 없고 중년 이후에는 갑자기 살이 빠지기도 한다. 육체적 결함을 의식하여 항상 열등감을 가지며, 강자에 영합하기도 하고 약점을 지적받으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때로는 무리를 지어 공격하기도 한다. 남성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성기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적인 욕구가 남아있어서 이를 해소하지 못했기에 신경질적이고 괴팍한 면이 있었다.

중국역사 속에 등장하는 환관은 무수히 많다. 齊(제)나라 때 管仲(관중), 秦(진)나라 때 趙高(조고), 後漢(후한) 때 十常侍(십상시), 당나라 때 高力士(고력사), 李輔國(이보국) 등이 유명하다. 환관은 황제의 동성에 파트너로서 자유롭게 황제의 후궁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궁중 여인들 사이에 진행되는 온갖 뒷공론에 정통했다. 황제가 환관을 철저히 믿는 경우 기밀을 상의하고 때로 비밀임무를 주기도 했다. 이들이 평상시처럼 말없이 자신의 임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별 일이 없겠지만, 황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변심을 하게 되면 황제를 암살한다거나 왕조까지 바뀌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 페르시아 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황제가 바뀌거나 한 왕조가 교체될 때에는 반역의 핵심 인물에 여지없이 환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 최초로 종이를 발명한 蔡倫(채륜)이 환관이었고 司馬遷(사마천)은 거세 당한 궁형의 치욕을 역사서 저술로 승화시켜 《史記(사기)》라는 불후의 역사서를 만들어냈다. 또 명나라 영락제 때는 鄭和(정화)라는 환관이 대선단을 인솔해서 7차례에 걸쳐 남해의 여러 나라를 정벌했다고 하는데 일부 중국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고 일부 중국학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신봉할 수는 없지만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것은 중국에 아프리카가 나오는 지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화의 정벌 빼고는 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환관

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이 ‘환관금지대고’를 내렸으나 그 역시 환관 魏忠賢(위충현)에 의해 죽음을 맞았고, 청말에는 서태후가 집정할 때 정치에 관여한 환관 安得海(안득해)가 유명하다. 다음 사진은 중국의 마지막 환관 孫耀庭(손요정)의 사진이다. 손요정은 청 선통제 1909년에 환관이 되었고 1996년 타계했다.



2. 이상 성심리와 성행위

1) 성전환증과 동성애

중국에서 성전환증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는 않으나 戰國(전국)시기부터 발견된다. 《荀子(순자)》의 〈非相(비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군주와 농촌의 소년들이 아름답고 곱게 단장하고 여자처럼 고운 옷으로 치장하고 다닌다. 여자같은 이들을 부인들이나 처녀들이 모두 신랑으로 삼기를 위하여 집을 버리고 쫓아다닌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꽃미남들이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이들은 여성에게는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 스스로를 여자라 생각했던 이들은 성적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였다.

흥미로운 것은 羊頭狗肉(양두구육)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晏子春秋(안자춘추)》 〈內篇·雜下(내편·잡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제 영공은 궁녀들을 남장시켜서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백성들에게도 퍼져 문제가 되자, 영공은 관리를 시켜 궁 밖에서는 남장을 못하도록 했다.

“여자로서 남장을 한 자는 그 옷을 찢고 허리띠를 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남장을 멈추지 않았다. 제 영공이 재상 晏嬰(안영)에게 이유를 물었다. 안영은 “전하는 궁 내에서 궁녀를 남장시키면서 궁 밖의 백성들에게는 남장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가게 문 앞에 양 대가리를 내걸고 가게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羊頭狗肉)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궁 안에서부터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남장유행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제 영공이 뉘우치고 궁 안에서 그것을 금지시켰다.

《순자》와 《안자춘추》에 나오는 사회현상은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으로 복장도착

중이라고도 한다. 이성의 옷을 입고 성적 만족을 얻는 증상으로 극도의 나르시시즘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순자는 세상이 타락한 결과라고 보았다. 《순자》, 〈樂論(악론)〉에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려 하면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지며, 남자가 용모를 여자처럼 꾸미며 풍속은 음란해진다는 대목이 있다.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잔다르크를 떠올리게 된다. 중국에는 祝英臺(축영대)와 花木蘭(화목란)의 경우가 여기 해당될 것이다. 축영대와 화목란은 전쟁터에서 남성처럼 활약했는데 그녀들의 혈기나 태도가 남성못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一文一武(일문일무)’라고 하며 이들이 여성의 지위를 드높였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이들이 남자를 능가하는 활약을 보였다면 남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육체적으로 완전히 남성화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성애에 관해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봉건시대의 일부다처제 하에서 자유연애가 억압되다보니 후궁과 후궁, 첩과 첩, 주인과 몸종 사이에 동성애가 빈번했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기록은 《尙書(상서)》, 〈伊訓(이훈)〉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벼슬아치나 제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亂風(난풍)’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난풍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거론한 첫번째 기록은 《안자춘추》에 있다. 이 책에 나오는 경공은 용모가 준수했는데 어떤 신하가 경공을 흠모하여 쳐다보았다. 경공은 자신을 감히 쳐다보는 것이 불손하다고 여기고 그를 죽이라고 명한다. 그러나 안자가 경공을 좋아해서 쳐다보았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도가 아니라고 권고하자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그를 깨끗이 목욕시킨다면 내 장차 그로 하여금 내 등이라도 한 번 껴안아 보게 하리라.”

여기서 당시 임금이든 신하든 동성애에 깊이 빠져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춘추전국시대의 자유분방한 성풍속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韓非子(한비자)》, 〈說難訓(세난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衛(위)나라에 彌子瑕(미자하)라는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다. 그는 위왕 영공의 총애를 받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갈을 받게 되었다. 미자하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刑刑(월형: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나중에 미자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오히려 미자하의 효심을 칭찬했다.

“참으로 효자로다. 어머니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또 어느날 미자하는 왕과 과수원을 거닐었다.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어보니 아주 달고 맛이 있었다. 그래서 왕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맛보게 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미자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맛있는 걸 나에게 맛보이다니.”

세월은 흘러 미자하의 미색은 빛을 잃었고 왕의 총애도 잃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때 왕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예전에 과인의 수레를 몰래 뺏고, 또한 먹다 남은 복숭아(餘桃: 여도)까지 과인에게 먹인 적이 있다.”

미자하의 행동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다만 왕의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전에 칭찬받았던 일도 나중에는 죄가 된 것이다. 여기서 餘桃之罪(여도지죄)라는 성어가 생기게 되었다. 해석을 하자면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란 뜻이지만 속뜻은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런 동성애에 대해 옛 중국에서는 ‘龍陽(용양)’이나 ‘斷袖(단수)’라는 표현을 썼다. 용양은 魏(위)나라 安厘王(안리왕)의 동성애인 이름이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는 여러 후궁들의 미모가 빛을 잃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어느날 왕과 함께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렸다. 왕이 그 연유를 묻자 용양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큰 물고기를 낚자 조금 전에 잡은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폐하의 은덕으로 폐하와 함께 지내지만 천하에 미인은 많습니다. 훗날 더 아름다운 사람이 생기면 저를 버리시겠지요.”

그러자 왕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맹세하며 앞으로 다른 미인을 자기에게 추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노라 선언했다. 여기서 ‘용양’은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단수’는 소매를 자른다는 뜻이다. 西漢 建平(서한 건평)2년 어느날 漢哀帝(한애제)는 궁으로 돌아가다 궁궐 앞에 서있는 御史(어사) 董恭(동공)의 아들 董賢(동현)을 발견했다. 동공은 한애제 劉欣(유흔)이 태자였을 때 太子舍人(태자서인)을 한 적이 있었다. 수 년이 지나 다시 보니 동현이 준수한 미소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반가움에 그를 董門郎(동문랑)에 임명하고 霸陵令(패능령), 光祿大夫(광록대부)로 천거했다. 이후 동현은 더욱 총애를 받아 駙馬都尉(부마도위: 말을 관리하는 관직) 시중이 되어 궁을 나설 때는 황제의 수레를 함께 타고 궁을 드나들었다. 동현이 20세일 때 애제는 자신의 萬年冢(만년총) 옆에 따로 동현을 위한 무덤 하나를 더 만들게 했다. 자신이 죽은 뒤 저승에서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22세 때 동현은 大司馬(대사마), 大司徒(대사도), 大司空(대사공) 등 여러 관직을 함께 받아 권세가 황제 못지않을 정도였다. 애제는 심지어 동현을 요순임금처럼 선양시켜주려고 했다가 대신들의 만류로 철회한 적이 있었다. 또 《漢書·董賢傳(한서·동현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전한다. 애제가 농담삼아 대신들에게 “짐은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동현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하는데 어떠하오?”라고 했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은 대경실색했다.

그렇게 애제의 총애를 받던 동현은 어느날 오후 애제의 옷소매를 베고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일이 있어 애제가 일어나려는데 옷소매가 동현의 몸 아래에 깔려 있었다. 애제는 사랑하는 동현을 깨우지 않기 위해 옷소매를 칼로 자르고 일어났다. 여기서 ‘斷袖(단수: 옷 소매를 자르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것이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남총들은 황제의 애정이 식거나 황제가 죽고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자하가 총애받던 황제에게 처벌받은 것처럼 애제가 병들자 동현은 입궁이 금지되었고 세상을 떠나자 동현은 권력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처자와 함께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새로 권력을 잡은 조정의 중신 王莽(왕망)은 동현이 죽은 뒤 직접 동현의 관을 검사해 주검을

확인했을 정도였다.

한대에는 西漢 高祖(서한 고조)부터 東漢 寧帝(동한 영제)까지 황제 10여 명의 동성애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서한에 劉(류)씨 성을 가진 황제 25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숫자이다. 이처럼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엄격히 말해 황제들은 동성애가 아니라 양성애를 즐겼다. 漢武帝(한무제)는 수많은 후궁들과 즐겼고 동성애 상대자가 5~6명이나 되었다. 한무제는 漢嫣(한연)이라는 친구와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적인 우정을 나누었지만 이연년을 특별히 총애했다. 한무제는 이연년과 부부처럼 동거했는데 그의 누이동생 이연과는 양성애를 즐겼다. 그리고 한 성제는 조비연 자매에게 빠져 있으면서도 張放(장방), 淳于長(순우장) 등 동성애인을 두었다. 이런 현상에 미루어 볼 때 황제들이 남색을 즐긴 풍조는 순수한 동성애, 즉 정신적인 사랑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통치자의 음행에 더 가까와 보인다. 그러나 앞서 잠든 동현을 깨우기 싫어서 소매를 잘랐다는 애제의 고사가 있듯이 음행을 했지만 진정 동성애인을 아끼고 사랑한 경우도 있었다.

《漢書(한서)》, <張放傳(장방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제는 자신의 조카딸을 장방에게 시집보내면서 혼수에 금 천만을 보태주었다. 그러면서 성제와 장방은 동거를 했는데, 장방에 대한 성제의 총애가 지나쳤다. 그래서인지 장방은 여러 대신들의 모함을 받았고 태후에 의해 멀리 쫓겨나게 되었다. 성제는 장방과 눈물로 이별을 했고 그 뒤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했다. 이후 성제가 죽자 장방은 통곡하다가 따라 죽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군신간 애절한 사랑의 극치라고 했다.

한편 남조 梁(양)나라 제2대 황제는 簡文帝(간문제)인데 그는 시를 즐겨 지었다. 남녀간의 성애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시는 물론 동성애를 묘사하는 시도 남겼으니 變童(연동)이 대표적이다.

이후 동성애는 명청대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명대에는 동성애가 각급 관리와 서생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도 확대되었다. 청대에는 기녀뿐 아니라 남창도 성행했으며 남자가 남첩을 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성리학적 예교로 역사상 성억압이 가장 심했던 청대에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이 시대에 남녀간의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하자 어쩔 수 없이 동성을 통해 성욕을 해소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도 이성간의 성행위는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고대 방중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옛날 중국인들은 남자가 여자와 성교하면 양기를 잃어버려 병이 늘고 수명이 준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즉 동성애는 양기를 소모시키지 않는다고 믿었다. 청대 동성애의 성행에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성간의 동성애에 대해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렸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풍속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즐겼다고 한다.

옛 중국에서 여자 동성애는 ‘磨鏡(마경: 마법의 거울)’으로 불리었다. 여성이 서로 마주보고 애무하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모양새가 마치 중간에 거울 하나를 놓고 자위하는 것 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역사에서 여자 동성애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랑과 성을 남성 중심으로 생각해서이다.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도구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여자의 성은 금기시되고 억압되었다. 많은 중국의 남성들은 여자를 무성동물이라고 여겨 여자들 사이에 동성애가 있다고는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고서에는 분명 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그 최초의 기록은 한무제 때 진황후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전한과 후한시대의 성과 사랑]에서 상술하게 될 것이다. 또 역대 궁녀들 간에도 동성애가

성행했는데 이는 평생을 황궁에 간혀 독수공방해야 하는 성역압 때문이었다. 그래서 명대에는 궁녀가 태감과 對食(대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대식’이란 말도 ‘동성끼리 마주보며 먹는다’는 의미로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또 역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비구니나 여도사의 경우, 남자와 사통하면 안되지만 동성애는 교리에 위반되지 않았기에 동성애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남성을 접촉할 기회가 없는 여성들은 동성간의 접촉을 통해 성욕을 해소했던 것이다.

한편 廣東 順德(광둥 순덕)에 있었다는 동성애 풍속도 흥미롭다. 이 지역에서는 누에 치는 여자들이 출가하지 않고 여자들끼리 의자매를 맺어 부부처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이들을 老姑婆(노고파), 누에 치는 곳을 姑婆屋(고파옥)이라 불렀다. 여기서 동성애 풍속이 생긴 데는 연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누에 치는 곳을 성결한 장소로 여겨서 남자들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의자매를 맺으며 거행하는 의식을 ‘梳起(소기)’라고 하는데, 의식을 거행할 때는 시집갈 때 신부의 모습처럼 땀을 머리를 빗어 올려 유부녀처럼 만든 뒤 사원 내의 신전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탉을 잡아 피를 마시고 신에게 절하며 의자매의 연을 맹세하였다. 이 풍속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張之亮(장지량)감독의 《自梳(1997)》이다.

고대소설에도 여성의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금병매》나 《聊齋志異(요재지이)》같은 소설은 물론 《홍루몽》도 그러하다. 《홍루몽》에는 藕官(우관)과 藥官(약관)이라는 두 여배우의 동성애가 등장한다. 전통극 공연에서 둘 중 하나는 젊은 남자역을 맡고 또 하나는 말괄량이 여자역을 맡았는데 늘 단짝부부로 연기했다. 그러다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다. 약관이 죽자 우관은 실신할 듯이 슬피 울었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그녀는 향을 피우며 약관의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蕊官(예관)이라는 여자가 극단을 찾아와 우관을 만나게 되면서 사정은 바뀌게 된다. 이미 약관을 떠나보낸지 오랜 그녀는 예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이에 대해 우관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재혼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실 동성애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했던 현상이다. 동성애에는 선천적 요인도 있고 후천적, 외부환경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중국과 달리 서양에서는 고대에 동성애를 허용했지만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했다. 이후 중세시대에는 이를 죄악시 여겨 잔혹한 처벌을 가하기도 했다. 18, 19세기에는 동성애를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상 성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가 여부는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서양이나 현대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이런 편견과 달리 옛 중국에서는 한 번도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야만행위가 없었던 점이 다른 점이다.

3) 페티쉬즘

동성애 외에 성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 대한 이상현상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보다 훨씬 드물었고, 중국역사 속에서 대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 중 한 예로 ‘페티쉬즘’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다. 성도착증의 하나로 분류되는 ‘페티쉬즘’은 인격체가 아닌 물건이나 특정 신체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취향을 말한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애착이 지나쳐서 사물이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라면 병적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劉備(유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유비에게는 甘(감)부인, 糜

(미)부인, 孫(손)부인 등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 중 감부인은 피부가 옥같이 곱고 미모도 아름다와 유비는 그녀를 매우 총애했다. 후에 어느 사람이 높이가 석 자나 되는 옥으로 조각한 미녀상을 유비에게 바쳤다. 유비는 미녀상을 매우 좋아하여 감부인을 꺼안아도 미녀상을 함께 가지고 놀았다. 그는 ‘옥의 귀한 바가 군자의 덕에 비유되는데 하물며 옥인형이라도 가지고 못놀 일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감부인은 말하기를 아직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는데 하찮은 노리개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고 권고했다. 유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공감하여 이 미녀상을 내다버렸다.

또 중국 고대신화와 전기소설에는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이 걸어나와 남자의 배필이 되는 이야기가 흔히 등장한다. 唐(당) 於逖(어적)의 《聞奇錄(문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진사 趙顏(조안)이 화공에게 보잘것 없는 병풍 하나를 얻었는데 眞眞(진진)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그 여인을 흠모한 조안이 백일 동안 애절하게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자 여인이 응답을 했고, 조안이 百家彩灰酒(백가채회주)를 그림에 뿌리니 여인이 그림 속에서 걸어나왔다. 여인은 그의 첩이 되어 아이까지 나아 잘 살았다. 그 심 속 여인을 보고 100일 동안 이름을 부른 이 이야기에도 페티쉬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청나라 袁枚(원매)의 《續子不語(속자불어)》에는 신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나라 采蘅子(채형자)의 《蟲鳴漫錄(충명만록)》에는 이성의 머리카락을 보고 흥분한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런 예들도 페티쉬즘 증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배설물에 심취하는 변태행각도 찾아볼 수 있다. 楊銜之(양현지)의 《洛陽伽藍記(낙양가람기)》에는 육조시대의 승려 寶志(보지)가 소변으로 머리감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명대 洪武(홍무)년간에는 宗防(종풍)이라 불리는 고승이 변 속의 참깨를 밥이나 죽에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金瓶梅(금병매)》에는 소변을 먹는 변태행위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玉芝堂談薈(옥지당담회)》에는 李棟之(이연지)라는 사람이 남자의 정액 먹기를 좋아했고, 명태조의 막내딸 寶慶(보경)공주의 남편 趙輝(조휘)는 여자의 월경혈과 질 분비물 먹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南史(남사)》에는 劉邕(유옹)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딱지가 별미라고 하며 먹기를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이상행위는 대부분 성적 억압이 있을 때 일어난 성도착증이다. 어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성적 억압을 벗어나 쾌감을 느끼고자 했던 것이다.

4) 성도착증

관음증은 성도착증의 하나로 이성의 벗은 몸이나 성행위 하는 장면을 관찰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 또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가리키는 질환이다. 중국문헌에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자. 송대 陶穀(도곡)의 《清異錄(청이록)》에 의하면 오대십국 南漢(남한)의 군주 劉鋹(유창)은 다른 사람이 성관계 갖는 장면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못생긴 소년을 골라 어린 궁녀와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의 옷을 벗겨 후원에서 관계를 맺게 하면서 구경했다. 또 검은 피부의 페르시아미인을 媚猪(미저: 예쁜 돼지)라 부르며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감상했다고 한다. 한편 前秦(전한)의 苻堅(부견) 역시 궁녀들이 남자와 나체로 궁전 앞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신하들과 함께 그 광경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 사람과 짐승 간에 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구경하며 즐긴 중국의 제왕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수간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노출증이란 이성에게 자신의 성기나 나체를 보여주고 희열을 느끼는 성도착증을

말한다. 《情史(정사)》권17에는 洛陽(낙양)시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크고 장대한 질과 무성한 음모를 보여주며 낙양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또 楚(초)나라 安某(안모)의 성기는 말의 그것을 방불케 할 만큼 컸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기를 보여주고 구경꾼들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보는 것, 만져보는 것에 따라 가격을 달리 했다.

진나라의 유명한 환관 嫪大(노대)도 성기가 커서 유명했다. 당시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선비를 毒(애)라 불렀기 때문에 노대는 곧잘 嫪毒(노애)로 불렸다. 그는 음탕한 부인들과 놀아나면서 매끼 밥걱정을 안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한번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어 관청으로 끌려 갔는데, 呂不韋(여불위)가 그의 거대한 물건을 아깝게 여겨 구해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史記(사기)》, <呂不韋列傳(여불위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여불위는 노대로 하여금 양물에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걸고 여러 사람 앞에서 돌리도록 했다. 거양의 사내가 양물에 수레바퀴를 걸고 돌리더라는 믿기지 않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 소문은 금세 궁에까지 들어갔고, 여불위는 그를 이용한 계책을 세웠다. 노대를 환관으로 위장해 궁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환관이 된 노대는 궁에서 진시황의 모친인 趙太后(조태후)를 모시게 되었다. 노대는 조태후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통해 충애를 얻었고 長信侯(장신후)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분수를 몰랐던지 훗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패하여 진시황에 의해 능지처참 당하게 된다.

이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고대 중국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성기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성도착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노대는 여불위의 계책으로 성기를 노출했고 초나라의 안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고대 중국에서 노출증에 대한 기록임은 분명하다.

한편 이상성욕의 차원으로 수간이 있다. 수간은 성적 대상의 이상유형 중 하나인데 그 성적 대상이 양, 돼지, 개, 송아지 등 동물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중국에는 고대 전설에서부터 그 흔적이 발견된다. 전설에 의하면 炎帝(염제) 神農氏(신농씨)는 黃帝(황제)와 이복형제였다. 그는 少典氏(소전씨)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有媧氏(유와씨)가 華陽(화양)에 놀러갔다가 神龍(신룡)을 보았다. 그런데 이 때부터 태기를 느꼈고 후에 염제를 낳았다. 그래서 옛부터 신농씨의 그림은 소나 용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한 우락부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神農氏(신농씨)

그는 쟁기와 보습 등의 농기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후대인들에게

농사의 신으로 불린다. 또 약을 발명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의학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이 설화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고시대 부락의 장으로서 그가 다스린 부락이 소나 용을 토렘으로 하는 민족일 거라는 사실이다. 신농씨는 姜水(강수: 지금의 陝西省 鳳桑縣(섬서성 봉상현) 북쪽 岐山(기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姜氏城(강씨성)을 지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姜(강)’이라 하였다. 글자를 해석해 풀이해 보자면, ‘姜’은 ‘羊(양)’과 ‘女(여)’의 결합이다. 즉 양을 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강수 옆에서 살았다는 것은 姜母(강모)와 통한다. 이와 같이 신화와 글자해석을 연관지어 유추해 보면 신농씨는 양과 여인의 결합, 즉 수간을 통해 태어난 셈이 된다. 물론 신농씨의 어머니가 실제로 양과 수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런 행위가 엄연히 존재했음은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제1장에서 상술했던 伏羲氏(복희씨)와 女媧(여와) 역시 몸은 뱀이요, 머리는 사람인 반수반인이다. ‘복희여와교미도’에서 복희씨와 여와는 뱀처럼 꼬리를 교접하는 모습이였다. 이처럼 고대에는 동물과 인간의 교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지만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文海披沙(문해피사)》에는 역사적으로 사람과 짐승간에 교접한 수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외에도 사람과 암탉 등 수간에 관한 기록이 중국의 야사에 전해지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나 이슬람문화권 등에도 수간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한편 《博物誌(박물지)》에도 수간을 묘사한 내용이 있다. 용성씨 막내아들은 평소 음란한 짓을 일삼았는데 그가 백주대낮에도 음란한 짓을 하자 황제가 멀리 서남쪽으로 내쫓았다. 그러자 그는 거기서 말을 아내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 역시 허황되어 보이기 는 하나 과거에도 실제 있음직한 일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로는 《瀟湘錄(소상록)》에 杜修己(두수기)의 아내 薛氏(설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설씨는 품행이 방정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집에 흰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이 개가 설씨 침대에 올라왔는데 설씨의 마음이 동해 개와 관계를 맺었다. 이후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설씨는 개와의 관계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梵天廬叢錄(범천로총록)》에는 사람과 개가 통간한 사건을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蔣山(장산)에 어느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장사를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조를 잘 지켜 칭찬을 들었다. 그녀의 집에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온순하고 체구가 컸다. 몹시 추운 겨울 어느날, 개가 침대 밑에 오더니 추위에 떨며 떨어지지를 않았다. 부인은 개를 침대에 올라오게 해서 이불로 덮어주었다. 그런데 부인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 개도 부인도 서로 자제할 수 없어 마침내 관계를 가지고 말았다.

해가 지나 남편이 돌아오자 개는 남편을 보고 짖어대며 원수 대하듯 했다. 어느날 남편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다시 개를 끌어안고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관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왔다. 개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고환을 물어뜯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부인이 놀라 소리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녀와 개는 관청에 끌려갔다. 한참 심문하고 있는데 개가 부인의 품에 뛰어들어 성기를 세운 채 교합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부인을 조용히 심문한 결과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남편살해를 공모한 죄를 적용하여 부인과 개는 참수당하게 되었다.

한편 《閩微草堂筆記(열미초당필기)》에는 何氏(하씨)라는 부자상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하씨는 돈 많고 잘생겼지만 창기들과 노는 것을 싫어했다. 대신 암탉지 10여 마리를 사

다가 목욕시키고 살지워서 대낮에 몰래 교접을 했다. 이 일이 계속되자 마을에 소문이 났지만 하씨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어느날 그의 친구가 그의 면전에서 이 일을 농담삼아 거론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수치심을 느껴 우물에 빠져 죽었다.

기운은 이 일을 기록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사건을 맡은 木金泰(목금태)가 말하기를 ‘내가 친히 심문해 투옥하지 않았다면 비록 司馬溫公(사마온공)이 이 일을 내게 말한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청대 필기소설인 《蕤鄉贅筆(순향취필)》에도 사람과 개의 견간, 원숭이와의 후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내용인즉슨 개와 교접한 여인이 강아지 세 마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원숭이와 교접한 여인은 반은 사람, 반은 원숭이인 괴물 하나를 낳았다. 동물과 사람간에 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았다는 비과학적인 사실에 미루어 이야기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贅筆(취필: 온당치 않은 기록)’임에 미루어 보면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청대에도 수간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사람과 짐승간에 성교를 하게 하고 이를 구경하며 즐긴 제왕들이 있었다. 명대 謝肇淛(사조제)의 《文海披沙(문해피사)》에는 한대 廣川王(광천왕)이 궁녀로 하여금 나체로 숫양과 성교하게 했고 한대 靈帝(영제)는 서원에서 개와 사람이 짝짓기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청대 趙翼(조익)의 《二十二史劄記(이십이사차기)》권3을 보면 서한 때 江都(강도)의 王劉建(왕류건)이 궁인을 나체로 땅에 구부리게 하고 숫양 및 개와 성교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제왕 劉終古(유종고)가 아끼는 노비와 八子(팔자)라는 첩, 그리고 여러 시비를 데려와 백주 대낮에 나체로 엎드려 개나 말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것을 구경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변태적인 행위는 인간으로서 자연적 본성이 억압되자 관음증이라는 기형적 욕구로 발전한 행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녀간의 사랑은 산 자끼리여야 하겠지만 간혹 시체와 동침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절취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상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변태적 행위로 중국의 정사와 야사 모두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실례가 비록 흔하지는 않으나 시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資治通鑑(자치통감)》에는 ‘呂后陵(여후릉)에서 시체를 능욕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시체를 능욕했다’는 표현이 꼭 성적인 접촉을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 《後漢書·劉盆子傳(후한서·유분자전)》에는 赤眉軍(적미군)이 呂雉(여치)의 시체를 욕보인 사건이 등장한다. 이것은 西漢(서한) 말년 농민기의군 가운데 하나인 적미군의 작전행위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농민기의군의 우두머리 적미는 군사를 이끌고 다니며 궁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했다. 陽城(양성)에 이르자 제후의 능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를 도굴하기로 하고 능을 열어보았다. 무덤 안에는 옥합에 싸여 염한 왕후의 시체가 있었다. 그런데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아 적미는 급기야 시체를 욕보이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당나라 戴君孚(대군부)의 《廣異記(광이기)》에도 나온다. 도굴꾼들이 華妃(화비)의 무덤을 도굴하고 시체를 능욕했다는 기록이다. 또 송나라 周密(주밀)은 《齊東野語(제동야어)》를 지었는데 그가 잘 알고 지내던 조모라는 인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이 서술되어 있다.

“송 嘉熙(가희)년간 宜興(의흥) 현령을 맡은 조모가 전임현령의 딸 시체를 파내서 욕보인 일이다. 전임현령의 딸이 15세의 나이로 죽어서 매화나무 아래에 묻혔다. 그러나 조모가 무덤을 파내서 보니 살아있는 사람처럼 미모가 출중하여 마음이 동했다. 시체를 벽장에 옮겨

놓고 향을 피운 뒤 시체를 범했다. 집안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시체를 내와 화장했지만 조모는 결국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청대 羊朱翁(양실옹)의 《耳郵(이우)》권4에도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바보 해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소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죽자 무덤을 파서 업고와 간음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어 해씨는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것은 옛 중국에서 시체의 능욕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모두 참수나 능지처참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메조키즘과 새디즘에 관해서 알아보자. 메조키즘은 이성으로부터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느낌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새디즘은 가학적인 행위로 성적인 만족을 얻는 병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

중국 新疆(신강)의 민요 《在那遙遠的地方(저 머나먼 곳에서)》을 보면 “그녀의 저 아름답고 감동적인 눈은 저녁 무렵 맑고 아름다운 달과 같네. 나는 한 마리 양이 되어 그녀 곁에 있고 싶어라. 그녀가 가벼운 가죽채찍을 들고 매일 끝없이 내 몸을 때릴 수 있도록”이라는 가사가 있다. 한 마리 양이 되어 양치는 여인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 그녀의 채찍으로 맞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이 민요에 잘 드러난다. 이것이 꼭 병적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채찍으로 아프게 맞고 쾌락을 느끼려는 것은 메조키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前秦(전진)의 군주 苻生(부생)은 잔혹한 새디스트(가학성 변태성욕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한 쪽 눈이 볼구였던 그는 성정이 포악했다. 354년에 형 苻萇(부장)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사망하자 전진의 태자 자리가 비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부건은 당시 유행하던 ‘五羊三眼(오양삼안: 양 세 마리에 눈 다섯 개)’이 군주가 된다는 도참설을 따라 애꾸눈인 부생을 태자로 삼게 된다. 이후 아버지 부건이 죽자 왕위에 오른 부생은 잔혹한 폭정을 일삼았다. 사람을 예사로 죽이고 공신들을 마음대로 처형했다. 그는 궁녀들로 하여금 염소나 나귀와 교합하도록 하고 자신은 구경을 했다. 그랬다가 양이나 나귀를 산 채로 껍질을 벗겨 뛰어다니게 하며 구경했다. 그는 때로는 산 사람의 얼굴 껍질을 벗겨내고 피를 흘리며 춤을 추게 하고 즐겼다고 한다.

한편 北齊(북제)의 군주 高洋(고양)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었다. 어느날 그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가다 한 여자를 만났다. 고양이가 여자에게 ‘현재 천자가 어떠냐’고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가 천자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놈’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술김에 칼을 뽑아 그 여자를 베어버렸다. 또 한번은 그의 수하에 있던 최지라는 대신이 죽었다. 그는 역시 술이 취한 채로 조문을 갔다. 최지의 죽음에 슬피 울던 그는 그의 처에게 물었다. “최지가 그리우냐?” 최지의 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저승 가서 남편을 보라’고 하더의 최지의 처를 칼로 내리쳐서 목을 자르고 머리를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또 그는 기녀 출신의 미녀 薛貴嬪(설귀빈)과 그의 언니를 총애했다. 어느날 이 언니가 실수로 그에게 해를 입혔다가 분노를 샀다. 그녀는 거꾸로 매달려 사지가 찢겨 죽었다. 고양은 술을 마시자 동생 설귀빈이 기생이었다는 생각이 났고 화가 나서 동생의 목도 잘라버렸다. 그는 설귀빈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서 다른 술자리로 갔다. 직접 설귀빈의 시체를 토막낸 그는 술자리에서 대퇴골로 비파를 만들고 뼈를 굽는 소리를 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술이 깬 뒤에는 후회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설귀빈의 장례식 때 상여가 나가자 고양은 머리를 산발한 채 상여를 쫓아가며 울부짖었다.

어쨌든 술만 취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술과 톱을 아예

준비해두었다. 그리고 재상 양암에게 늘 사형수들을 준비해두도록 하여 그가 술을 마시고 마음이 동하면 즉시 대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수들 가운데 고양이 술을 마셔도 3개월 내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천운이 따른다 하여 석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다. 한편 송나라 趙德麟(조덕린)의 《侯鯖錄(후정록)》에는 宣城守(선성수) 呂士隆(여사룡)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여사룡은 총애하는 기생이 있으면 매질하는 습벽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麗華(여화)라는 창기를 매질하려 하자 그녀가 하소연했다.

“제가 매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온 기생이 있는데 이를 심히 불안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사룡은 웃으며 매질을 그만 두었다. 여화는 영리한 임기응변으로 매질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명대의 성애소설 《金瓶梅(금병매)》에는 남자주인공 西門慶(서문경)이 술기운에 李瓶兒(이병아)의 음부를 태우거나 王六兒(왕육아)의 몸 세 곳에 향을 피우고 학대하며 즐긴 대목이 나온다. 이것도 새디즘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또 청나라 俞樾(유월)의 《右臺仙館筆記(우대선관필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건륭연간 어느 신임현감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녀의 옷을 벗긴 뒤 몽둥이질하기를 좋아했다. 기녀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돈을 주고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 고을에 몹시 가난한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어떤 기녀가 그녀에게 돈을 주며 대신 맞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젊은 과부는 기녀들 대신 여러 차례 발가벗고 매를 맞았고 그녀는 200여 냥의 은을 저축했다. 그녀는 이렇게 번 돈으로 남편의 시신을 고향에 모셔와 안장했다. 옷을 벗고 매를 맞아 돈을 벌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한 이 과부를 열녀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여인을 매질하며 기형적 성욕을 만족시켰던 그 현감은 분명히 가학성 변태성욕자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운의 《열미초당필기》에도 이런 변태성욕이 등장한다. 王成(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처에게 매질을 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즐겼다. 그는 밤새 매질을 하다가 즐기고 또 매질하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가학성 변태성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변태 현상들은 비교적 고대에 많이 보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봉건사회에 권력이 군주나 지배계급에 집중되어서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여자나 남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성억압이 엄격했던 이유도 있었다. 봉건사회의 성적 억압으로 사람들의 성적 욕구가 정상적으로 해소되지 못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이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옛사람들의 성적 무지가 이상 성심리와 성행위를 낳게 된 것이다.

3. 방중술

중국에는 한방이 발달했다. 한방은 원래 민간요법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자가 생기면서 전해지는 처방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래되어 한방으로 발전한 것이다. 《山海經(산해경)》도 그 중 하나이다. 내용을 보면 산맥을 따라 천하의 명산을 기술하고 산과 산의 거리와 산에서 나는 산물 즉 그 산에 사는 괴수와 조류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마술적, 주술적 내용이 많다. 뿐만 아니라 寶玉(보옥), 銅鐵(동철), 약초 등의 산물도 기술되어 있다. 이런 자료는 전국시대에서 秦代(진대)에 걸쳐 성행하였던 方士(방사)의 鍊丹術(연단술)로 이어지고 방중술

과도 연관되어진다.



《山海經(산해경)》과 《黃帝內經(황제내경)》

또 한편 원시의학의 태동기부터 전래되어 온 민간의학적 경험을 집대성하여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진단, 치료원칙 등 각 부문에서 동양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책이 《黃帝內經(황제내경)》이다. 이 책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에 저술되어 현존하는 의학문헌 중 가장 오래된 이론저서이다. 여기에는 남녀 생식기의 해부도와 함께 성생리, 성기능, 성보건 등 다방면에 걸쳐 성의학이론을 소개할 뿐 아니라, 성병의 발병원인과 치료법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의학자들이 연구한 산물로 한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 왔다. 이론적으로는 당시의 우주관이라 할 수 있는 음양오행사상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또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영한다고 보는 天人合一(천인합일)의 관점도 반영되어 있다. 방중술은 바로 음양오행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성적 본능을 억압하거나 방종하는 일 없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불로장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한방에서 불로, 그리고 장수라는 과제를 어떻게 육체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중국에서 방중술은 황제, 유가, 도가를 불문하고 중시했다. 그렇다면 방중술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방중술에 관해 흔히 침실에서 이성을 만족시키는 기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중술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지 과식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듯이 섹스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는 방중술이 성을 영위하는 방법이나 남녀가 지켜야 할 사항, 성과 관계 있는 약의 종류 뿐만 아니라 불륜에 대한 훈계를 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중술이 중국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하자.

중국의 방중술은 춘추전국시대까지가 맹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발전은 先秦(선진) 시기에 이루어졌다. 漢(한), 魏(위)나라 때 유행했고 당나라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중국 방중술의 시금석이 된 《黃帝內經(황제내경)》도 선진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또 《漢書藝文志(한서예문지)》에는 房中八家(방중팔가)라 불리는 8종의 방중술서적이 기재되어 있다. 이 밖에 湖南省 長沙(호남성 장사)의 한대무덤 馬王堆(마왕퇴)에는 여러 권의 방중술 관련서적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合陰陽(합음양)》은 양생과 방중술의 방법으로 행하는 체위 및 기술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天下至道談(천하지도담)》 역시 마왕퇴에서 나온 의학서이다. 이 책은 방중술로 질병을 고치고 보양하는 양생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마왕퇴에서는

《十問(십문)》이라는 서책도 발굴되었다. 이 책에는 성교가 어떻게 인체를 상하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성교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황제와 여러 방사들의 십문십답 형식으로 탐구되고 있다.

진한의 여러 제왕들은 신선과 도가사상에 심취했고, 한나라 조조도 방중술을 신봉했다. 그는 자주 방사를 불러 궁녀, 여악들과 더불어 방중술을 행했다. 이렇게 방중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玉房秘訣(옥방비결)》, 《소녀경》, 《현녀경》 등 방중술에 대한 체계적인 서적이 저술되었다. 《소녀경》은 晉朝 葛洪(진조 갈홍)이 지은 《抱朴子內篇·遐覽(포박자내편·하람)》에 나오는데 작자는 미상이다. 이 책은 전해지지 않다가 982년에 편찬한 《醫心方(의심방)》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일본인 丹波康賴(탐바 야스요리)가 발견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소녀경》은 바로 《의심방》에 수록되었는데 이를 청대 엽덕회가 《雙梅景暗叢書(쌍매경암총서)》에 실은 것이다. 책은 《소녀경》, 《玄女經(현녀경)》 둘로 나뉘어지는데, 《현녀경》은 일부 내용만 보존되어 있다.

《소녀경》에 나오는 황제의 스승은 소녀와 현녀, 采女(채녀)가 있다. 《소녀경》의 주요 인물은 황제와 소녀이다. 우리말에서 ‘소녀’라고 하면 ‘少女’, 즉 나이 어린 여자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한자로는 ‘素女’이니 ‘순수한 여자’ 정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황제는 지나치게 후궁을 가까이 해 건강을 해치고 성교불능 증세를 보였다. 그가 고민 끝에 岐伯(기백)이라는 사람을 불러 진단을 받았는데 방사과다 때문이라고 했다. 이 책의 형식은 황제가 소녀를 불러서 성문제를 질문하면 소녀나 현녀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소녀는 황제에게 성교는 여러가지 재료를 버무리는 음식이라고 했다. 음식이 서서히 익는 것처럼 여성도 서서히 달아오른다. 즉 성생리를 음식물에 비유한 셈인데,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끝내는 섹스가 최상의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소녀경》에는 外丹(외단) 등 여러가지 강정제를 소개하고 있다. 흔히 강장제와 강정제를 혼동하기 쉬우나 강장제와 강정제는 엄연히 다르다. 강장제는 전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영양상태를 좋게 해서 체력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강정제는 강한 섹스를 위해 복용하는 최음제류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의 강정제는 유향이나 수은이 함유된 외단이 많았다. 과거 중국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중독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로장생은 커녕 수은같은 약물중독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한 황제들이 그런 경우이다. 방중술의 정통과는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강장제를 선호했는데, 역시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녀경에는 ‘接而不漏(접이불루)’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교접하되 사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방중술의 핵심이 되는 이 말이 나오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소녀에게 물었다.

“사정을 하고 싶어도 참고 사정하지 않으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가?”

소녀가 답했다.

“한 번 사정을 억제하면 氣力(기력)이 왕성해집니다. 두 번 억제하면 귀와 눈이 밝아집니다. 세 번 억제하면 만병이 없어집니다. 네 번 억제하면 五臟(오장)이 안정되고, 다섯 번 억제하면 혈맥이 충만해집니다. 여섯 번 억제하면 허리가 강해지며, 일곱 번 억제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힘이 배가되고, 여덟 번 억제하면 온몸에 생기가 넘쳐 빛이 나며, 아홉 번 억제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윽고 열 번 억제하게 되면 道通(도통)하여 神明(신명)과 통하게 됩니다.”

소녀의 주장은 성관계 후 사정을 참는 것이 몸에 좋다는 논리다. 방중술을 수행하는 옛 사람들은 이를 믿었던 것 같고, 사정억제를 성교를 오래 끄는 기교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정을 참으면 소변이 역류되어 전립선염 및 고환염, 부고환염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접이불루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오류이며, 소녀의 주장은 단지 성교의 기교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사실 소녀의 주장은 ‘무조건 사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건강법 차원에서 재조명해보면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녀는 접이불루로 지속력을 강화시키고 잦은 방사를 막는 것이 성을 절제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괜한 정력의 낭비를 줄여야 절제 속에 사랑과 진정한 합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양생으로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녀의 논리는 섹스에서 쾌락의 추구 뿐 아니라 자제력도 함께 단련해야 몸과 마음에 이롭다는 것이다.

소녀는 황제에게 采女(채녀)라는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황제는 채녀에게 彭祖(팽조)를 찾아가 불로장수의 비결을 알아 오게 하였다. 채녀가 찾아오자 팽조는 다음과 같은 비결을 가르쳐 준다.

1. 많은 여자들을 바꾸어 가며 교접할 것
2. 젊은 여자들과 교접할 것
3. 자주 교접할 것
4. 자주 射精(사정)하지 말 것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으라는 팽조의 조언, 이렇게 회춘하려 한 노력이 중국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성경·구약편》, 〈열왕기〉에 다윗왕이 늙자 아름다운 젊은 소녀를 구해 회춘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팽조의 조언, 즉 많은 수의 젊은 여자와 상대를 바꾸어가며 자주 관계를 갖되 사정은 가급적 하지말라는 말은 일견 바람둥이의 좌우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숨겨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시의 황제들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조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이 결코 일부일처제의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여자들을 바꾸어 가며 교접하라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교접이란 양과 음의 교류를 말한다. 따라서 성행위가 가장 중요한 교접의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접이 단순한 성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남자의 陽氣(양기)와 여자의 陰氣(음기)가 상호 교류하면 생명의 기가 온전하게 얻어진다. 방중술에 있어서의 교접은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접을 통하여 생명의 기를 북돋아 장수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방중술에서 중요한 것은 기교나 쾌락의 차원이 아니라 음양교접의 도이다. 이 도는 여자의 차원에 주안점이 주어져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차원에서 성을 절제하고 지속력을 단련하는 것이다.

한편 《소녀경》에는 실제로 여러가지 체위가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9법의 龍翻(용번: 용이 나는 모습), 虎步(호부: 호랑이가 걷는 모습), 猿搏(원박: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어깨에 매친 모습), 蟬附(선부: 매미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은 모습), 龜騰(귀등: 거북이가 승천하는 모습), 鳳翔(봉상: 숫봉황이 나는 모습), 兎吮毫(토연호: 토끼가 가는 털을 빠는 모습), 魚接鱗(어접

린: 물고기가 비늘을 맞댄 모습), 鶴交頸(학교경: 학이 긴 목을 엇갈린 모습) 등이 있는데 모두 지속력 단련을 위한 전희의 방법이다.

방중술을 체계화하고 광범위하게 실천에 옮긴 사람은 B.C 142년 동한 順帝(순제) 漢安(한안) 5년(A.D 142년)에 도교의 2대 교파 중 하나인 天師道(천사도)를 창립한 張道陵(장도릉)이다. 이 때문에 장도릉은 방중술의 개창자로 불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방중술을 사람들의 질병치료에 응용했다는 사실이다. 《神仙傳·張道陵(신선전·장도릉)》에는 그가 ‘질병의 치료를 현소의 도에 따라서 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소란 《소녀경》과 《현녀경》을 가리킨다. 이 두 경전은 방중술의 대표적 저작이므로 그가 방중술로 병을 치료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남녀 교접의 도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이 요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장도릉의 천사도가 교도들에게 전수한 방중술은 中氣眞術(중기진술) 또는 合氣(합기)라고 부르는 수련의 방법이었다. 甄鸞(견란)의 《笑道論(소도론)》을 보면 네 개의 눈, 네 개의 코, 두 개의 입, 두 개의 혀, 두 손, 두 마음이 똑바로 음양을 향하고 스물 넷의 기를 좇아 도를 행한다는 한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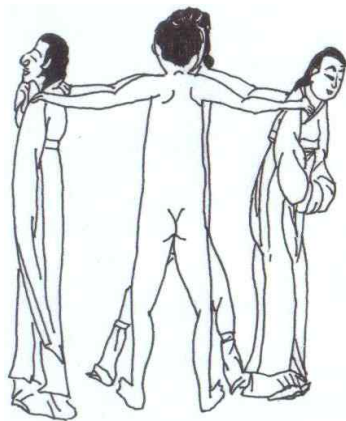


그림9



그림10

왼쪽 그림은 네 개의 눈, 네 개의 코, 두 개의 입, 두 개의 혀, 두 손, 두 마음이 똑바로 음양을 향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역시 ‘합기’를 나타내는 오른쪽 그림을 보아야 한다. 합기란 당시 유행하던 술어로 바로 남녀간의 성교를 의미했다. 방중술은 한당 시기에 가장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는 중국이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때로 일컬어진다. 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방중술에 관해서 적극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당대에는 성과 방중술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중술은 점차 왜곡되어졌다. 동한시대의 장도릉은 원래 평민을 위해 방중술을 제창했고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방중술이 왕실과 귀족 등 집권층에게 치중되면서 평민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원래 방중술의 취지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쾌락을 누리기도 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양생과 성적 쾌락을 함께 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첩을 여럿 둘 수 있었던 통치계급의 형편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방중술은 점차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갔다. 이에 따라 방중술은 양생을 위한 수련에서 성향락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방중술은 지배계급의 사치스럽고 음란한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된다.

원대에 주목할 만한 방중술 저작으로는 李鵬飛(이봉비)가 편찬한 《三元延壽參贊書(삼원연수참찬서)》가 있다. 이 책에는 정욕의 자연스러운 표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각으로 봐도 무척 설득력이 있다. 먼저 ‘欲不可絕(욕불가절)’, 즉 ‘정욕은 끊을 수 없다’는 것과 ‘欲不可早(욕불가조)’, ‘정욕은 일찍 발생하게 할 수도 없다’, ‘欲不可縱(욕불가종)’, ‘정욕만 좇아서 안된다’, ‘欲不可強(욕불가강)’, ‘정욕은 강화시킬 수 없다’, ‘欲有所忌(욕유소기)’, ‘정욕에는 거리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욕을 억제할 것인가, 좇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방중술의 본래 취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원대의 지배계급은 도가의 방중술을 밀교의 성수련과 결합시켰다. 일부 통치자들에게 방중술은 장생을 구실로 행하는 음행일 뿐이었다. 명대에 이르러 방중술은 더욱 왜곡되었다. 조정은 황제나 신하 모두 방중술을 논하였으며 신하들은 회춘약을 올리며 이것이 바로 방중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明(명) 世宗(세종), 嘉靖年間(가정년간)에 더욱 심해졌다. 陶仲文(도중문)은 세종에게 부적과 정화수, 회춘약을 진상하고 총애를 얻었다. 세종은 조정에 나오지 않고 종묘제사도 지내지 않으며 방중술에만 빠져 있었다. 방사, 도사, 관리들은 황제의 뜻을 사칭하여 미인을 찾아 다녔으며 약을 현상하기 위해 남의 재물을 빼앗는 등 백성에게 민폐를 끼쳤다. 명대 沈德符(심덕부)가 찬술한 풍속서 《野獲編(야획편)》에는 방중술에 대한 그릇된 미신으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孫太公(손태공)이라는 사람은 방중술로 관리들 집을 드나들었다. 남자아이에게 조열제를 먹인 후 양기가 끊겨서 답답해 괴로워할 때 아이의 음경을 잘라 미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죽인 어린아이가 수천이었다.”

회춘약을 만들기 위해 수천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약을 먹고 회춘한 것은 아니다. 약에는 정체불명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를 모르는 역대 중국의 황제들 가운데는 장생하기는 커녕 이를 과다 복용하고 일찍 죽음을 맞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당 憲宗(현종), 武宗(무종)은 이런 단약을 복용하고 급사했으며 당대의 대유학자 韓愈(한유)의 죽음도 이런 단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명나라 때도 비슷했다. 이렇게 되자 방중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빠지게 되었고 邪道(사도), 從欲(종욕), 음란의 대명사라는 인식이 생겼다. 진정한 군자라면 이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 원대 陶宗儀(도종의)는 《輟耕錄(철경록)》에서 ‘요즘 사람들은 運氣(운기), 逆流(역류), 采戰(채전) 등과 같은 사악하고 불경한 도술을 방중술이라 한다’고 비판적으로 말한 바 있다. 청대 馮時可(풍시가)는 《雨航雜錄(우항잡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성교로서 장생을 구함은 단정컨대 필경 쓸데 없는 것이다. …… 자신의 정기도 제어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정기를 취해 쓸 수 있을까?”

앞서 《소녀경》에서는 남녀가 함께 즐긴다는 측면을 강조했지만, 이후 도가에서는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성으로 장수를 추구하고 남성만의 자양강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여성을 도구로 삼아 음기를 취해 양기를 보충한다는 논리다. 그 본질은 상대방의 기를 빼앗아 자신

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다. 도가의 방중술은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쉽게 악용되어 황제들은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자신의 음탕한 행위를 합리화했다. 여자를 뽑는다는 구실로 일반 평민들로부터 나이 어린 소녀들을 뽑아 강제로 데려오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 적지 않았다.

예전에 중국에 불교가 보급되고 금욕주의적인 정서가 퍼지면서 도가 방중술이 위축된 바 있다. 송대에 이르러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하는 정주리학의 성행은 도가 방중술에 대해 또 다른 타격을 안겨주었다. 송대 주자학이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과 관련한 모든 논의가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방중술은 송대 이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 명청대에는 王陽明(왕양명)의 陽明學(양명학)이 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성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강력히 금지하고 대신 인의와 도덕만을 강조하게 된다.

방중술은 이 시기에도 명맥을 이었으나 종합 성의료 서적에서의 연구로 간간히 등장할 뿐이었다. 송대에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는 南宋(남송)의 명의 陳自明(진자명)이 쓴 《婦人良方(부인양방)》이 있다. 이 책에는 득남할 수 없는 원인을 남녀 양쪽 모두에 제기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 중국에서는 여자가 애를 못낳는 것을 여자의 잘못으로만 여겼다. 조선시대의 칠거지악에는 無子(무자)가 여자가 쫓겨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기도 했다. 특히 아들 못낳는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는 병폐는 오늘날에도 없지않은 만큼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서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성욕을 억압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법, 성적 억압은 남성에게는 공염불일 뿐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다. 지배층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정신적인 억압은 잘못된 방중술을 만연하게 하였다. 방중술의 원래 취지가 빛을 잃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성풍속은 절제력을 잃어 건전한 성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다. 성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엉뚱한 곳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바로 《금병매》, 《육보단》 등 성을 과감하게 다룬 문학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 청말민초에는 유명한 사학자이자 금석학자, 장서가, 고증학자인 葉德輝(엽덕휘)에 의해 《雙梅景閣叢書(쌍매경합총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고대의 성학도서를 정리하고 수정한 것으로 앞서 《소녀경》이 실려 있다고 설명했던 책이기도 하다. 그는 19세기 중국에서 고대 성문화를 연구한 첫번째 사람인데 그의 공헌은 중국 고대의 성학을 연구하여 6가지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과 양이 천지 우주간의 큰 맥이기에 음양 두 관계의 화해를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성교 이전에 하는 전희에 관해 서술했다.

셋째, 성교과정에 관한 서술로 여러가지 체위와 기교를 운용해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법을 서술했다.

넷째, 아들 낳는 법, 임신, 우생, 양육방법 등을 서술했다.

다섯째, 성기능 치료를 서술했다.

여섯째, 食補(식보), 즉 음식으로 몸을 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서술하였다.



《雙梅景閣叢書(쌍매경함총서)》

그의 이런 지적은 현대적 안목에서 매우 정확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고대 방중술은 현대 성과학에 포함된 성생리학, 성심리학, 성사회학의 기본 맥락을 거의 다 포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남녀간의 예교와 처첩관계

1. 남녀간의 예교

앞서 방중술의 발전을 통해 본 선진시기의 성에 대한 관념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성이 갖는 기능을 중시하면서 점차 성이 갖는 규범을 세워나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 고대의 혼인 제도, 즉 일부일처제는 周代(주대)에 이르러 자리를 잡게 된다. 周나라 때는 결혼할 때 남녀의 나이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六禮(육례)를 갖추어 혼인도 禮(예)에 맞추었으며 진나라 이후에는 이를 律(율)로 보완했다. 특히 송대에 와서는 주자학이 통치이념이 되면서 방중술이 억압되는 면모를 보였다. 즉 남녀간의 예교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서 천리와 인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남녀간의 예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예교’란 예법과 도덕을 의미한다. 이를 ‘男女大防(남녀대방)’의 예교라고 하는데 그 단초는 《孟子·離樓上(맹자·이루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녀 간에 주고 받을 때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예라고 한다.(男女授受不親, 禮也.)”

그러나 맹자사상의 모태가 된 공자의 《논어》에는 남녀대방에 관해 언급한 바가 없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맹자가 ‘男女授受不親’이라고 했지만 그는 남녀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너그럽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왕이 여색을 좋아하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었다. 이를 왜곡해 역대 황제들은 방중술을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미녀를 선발해 음란함을 즐겼고, 또 송대 이후 도학자들은 정반대로 맹자의 말을 편협되게 해석해 남녀 간에는 손도 잡아서도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이런 주장은 조선조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억압적인 예교를 강요하게 되었다.

유가는 예를 강조한다. 그러나 맹자는 식욕과 성욕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때로는 예보다 중요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무작정 ‘예’를 지키겠다고 고집하다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적절히 권한을 사용해 상황에 따라 변통해야 한다는 논리가 《맹자》에는 계속 등장한다. 일례로 淳于髡(순우곤)이 맹자에게서는 남녀간에 손도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뻗어 도와줘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답답한 질문을 하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손을 뻗어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의를 모르는 짐승과 같다. 남녀가 직접 손으로 주고 받지 않는 것이 예이지만 물에 빠진 형수를 손으로 끌어내주는 일은 상황의 윤리로 정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옛 중국에서 예교를 강요하기 보다는 적절한 권한을 사용해 현명한 처신을 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우선 楚(초)나라 莊王(장왕)의 고사를 들 수 있다. 장왕은 어느날 신하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해가 저물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갑자기 등불이 꺼졌

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그 때 술에 취한 누군가 초장왕을 모시는 궁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희롱을 했다. 그러자 그 궁녀는 얼떨결에 남자의 갓끈을 잡아 떼서 갖고 있었다. 다시 불이 켜지자 궁녀는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누군가 불이 꺼진 와중에 자신을 희롱하길래 그 남자의 갓끈을 떼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자를 희롱한 신하를 용납할 제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왕은 ‘내가 어찌 부인의 정절을 드높이기 위해 신하들을 옥보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모든 신하들의 갓끈을 떼어내게 했다. 누가 궁녀를 희롱했는지 아예 증거를 없애서 일을 덮어둔 것이다. 장왕의 이런 대범함은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신하들을 감동하게 했다. 세월은 흘러 진나라와 초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 때 뛰어난 용맹으로 전쟁에 공적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와 장왕에게 이르되, ‘그때 궁녀를 희롱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폐하의 관대함에 감격해 폐하를 위해 언젠가 이 몸을 장렬히 불사르고자 맹세한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했다.

齊(제)나라 孟嘗君(맹상군)의 고사도 이와 비슷하다. 제나라 맹상군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맹상군의 부인을 사모한다는 자가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지인이 맹상군에게 그를 처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맹상군은 남녀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모른 척하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다짐받았다. 이후 맹상군은 자기의 부인을 사모한다던 자를 불러 더 높은 자리에 천거해 주겠다고 魏(위)나라로 보냈다. 위나라로 간 그는 크게 환영을 받고 맹상군의 말대로 높은 자리에 등용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나라 왕이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때 그가 나서서 만류했다.

“제나라와 위나라는 일찍이 서로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선조의 약조를 어기는 일입니다. 부디 제나라에 대한 감정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결하겠습니다.”

그의 만류로 위왕은 마음을 풀었고 이 소식을 들은 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맹상군은 과연 훌륭하다. 화를 바꾸어 공으로 만들다니.”

《禮記(예기)》에는 후세 도학자들이 강조하던 남녀간의 예교가 등장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종교 교리처럼 받들던 남녀간에 지켜야 할 계율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맹자는 남자가 주고 받을 때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사나 장례의 일이 아니면 남녀가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도 여자는 물건을 담은 광주리를 준비해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땅에 놓은 다음에 집도록 한다.”(《예기·내칙》)

또 조선시대 여인들이 외출할 때 장옷을 써서 얼굴을 가린 연유와 남녀칠세부동식에 관한 계율도 등장한다.

“안 사람과 바깥 사람이 같은 우물을 써서는 안되고 욕실을 함께 써서는 안되며 잠자리 도구를 함께 써서는 안되고 직접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도 안되며 남녀가 서로 같은 옷

을 입어서도 안 된다. 안채의 대화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되고 바깥채의 대화가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 여자가 문 밖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가려야 한다. …… 나이가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함께 자리하지 않으며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예기·내칙》)

또 《禮記·郊特牲(예기·교특생)》에는 ‘여자는 한 남자를 따르며 일생을 마쳐야 된다’는 一夫從事(일부종사)나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나면 아들을 따른다’는 三從之道(삼종지도)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또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서로 배우자의 얼굴도 못본 채 양가 부모간의 결정으로 결혼을 해야 했던 단서도 발견된다.

“자식이 자기 부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싫어하면 부인을 내쫓아야 한다. 자식이 자기 처를 싫어해도 부모가 나를 잘 섬긴다고 하면 자식은 부부의 관계를 지속해나가며 죽을 때까지 그만둘 수 없다.”(《예기·내칙》)



《禮記(예기)》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주자학에서 혼례라는 것이 두 집안을 맺어서 위로는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지 당사자간 사랑의 결실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동한 초기에 이루어진 《白虎通(백호통)》에는 《예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 등장한다.

“남자는 마음대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여자도 마음대로 시집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모와 중매의 의견을 통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음란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부끄러워 저어하기 때문이다.”(《白虎通·嫁娶(백호통·가취)》)

또한 《백호통》에서는 三綱(삼강)을 말한다.

“삼강이란 무엇인가? 군신과 부자와 부부의 관계이다. …… 임금의 신하의 버리가 되고 부모는 자식의 버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된다.”(《白虎通·三綱六紀(백호통·삼강육기)》)

또한 군왕은 한 번만 결혼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의 역대 군왕과 신하들 가운데 한 번만 결혼해서 부인 하나만 둔 남자가 몇이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교는 춘추전국 음풍의 시대를 지나 막 형성된 봉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였다. 秦(진)나라, 漢(한)나라 통일제국이 형성되면서 예교가 완비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방종적인 욕구충족의 경향은 여전했다.

실제 제왕들은 무제한적으로 처를 많이 두는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여론이 비판적일 수 있고 대신들이 간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처녀징발이 제왕의 뜻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역사서에서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 처녀들을 마구 징발해온 기록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소녀경》에는 황제가 120여 명의 여인과 함께 지내다가 신선이 되었다는 허황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믿고 중국의 많은 군왕들은 궁녀를 많이 두는 핑계로 삼았다. 夏(하)의 桀王(걸왕) 때 궁중에는 여악과 여자배우가 3만 명이나 있었다. 한편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면서 6개국에서 1만여 명의 궁인, 여악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三輔舊事(삼보구사)》에 의하면 ‘진시황이 中外殿(중외전)에서 145명을 관망하고 후궁 1만여 명을 도열하게 했는데 그 기상이 하늘을 찔렀다’고 한다. 漢(한)나라의 桓帝(환제)는 궁녀가 5~6천 명이었다. 한편 《晉書(진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西晉(서진)의 武帝(무제) 司馬炎(사마염)이 273년 공경대부 이하의 미인을 선발하기 위해 가정집 여인들을 육궁에 불러들였는데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그는 이듬해에 다시 미인을 선발하기로 하여 양가집 규수 5000명을 입궁시켰다. 이들을 수레에 태워 마구 징발해 가다보니 귀족자녀들은 입궁하지 않으려고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물골로 지낼 정도였다. 이렇게 징발당한 딸과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궁 밖에까지 울려 퍼지기도 했다. 8년이 지나 사마염이 吳(오)나라를 평정한 후에는 또 孫皓(손호)에게 칙 5천 명을 뽑아 입궁하게 했다.

궁녀수는 특히 당대에 와서 최고조에 달했다.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당 현종은 궁녀가 40000명이었다고 한다. 현종은 선왕이 붕어하여 빈소를 지키고 있었지만 선왕의 남은 궁녀들에게 눈독을 들일 뿐이었다. 현종과의 로맨스로 유명한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18번째 아들 壽王(수왕)의 비였다. 현종은 첫눈에 며느리를 보고 반해서 자기 여인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제왕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흠아비와 여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서에는 군왕의 황음이 지나칠 때 대신들이 ‘하늘이 경계함을 보입니다’라는 말로 충간을 했고 이에 귀를 기울여 자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대 중국의 몇 왕조에서는 권력자가 죽으면 데리고 있던 하인이나 시비를 순장하는 제도가 있었다. 남자보다 여성을 순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일찍이 주 유왕의 무덤을 발굴하자 안에서 100여 구의 시체가 나왔는데 1명은 남자, 나머지는 전부 순장당한 여자 시체였다. 역사서에 따르면 진시황의 아들 진이황은 만여 명의 후궁과 장인들을 순장하게 했다. 이런 악습은 면면히 이어지다가 청초에 이르러 비로소 철폐되었다.

제왕 뿐만 아니라 귀족자제들도 여러 명의 첩을 두었다. 위진 교체기 無康(무강)년간 귀족자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벗고 술을 퍼마시며 첩들을 희롱했다고 한다. 왕실 뿐 아니라 처첩을 여럿 두는 것은 당대의 관행이었고 귀족이나 사대부들이 자유분방하기는 왕실에 못지않았다. 당나라 이후의 사대부들은 家妓(가기: 집안의 기생)를 두어서 시첩노릇을 하게 했다. 이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손님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했다. 유가의 사상을 존중하며 도교, 불교를 배격하고 송대 이후 성리학의 선구자가 되었던 당대의 韓愈(한유)에게도 집에 絳桃(강도)나 柳枝(유지)같은 가기가 있었다. 또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白居易(백거

이)도 부인을 매우 아꼈지만 樊素(번소)나 小蠻(소만) 등 여러 가기를 두었다. 도통을 계승한 사대부, 위대한 시인들이 가기를 두었던 만큼 이런 풍조는 당시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단지 이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만 했다면 이들은 하녀일 뿐 한유나 백거이는 실제로 애처가였을 수도 있다. 한편 백거이의 명시 《琵琶行(비파행)》에는 처음 상인의 아내로 시집갔다가 농락당하고 버림받아 결국 歌妓(가기)가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비파행》은 천년이 넘게 감동적인 시로 읊어졌는데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미루어 이것이 실제 있음직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후비나 황실의 공주들도 자유분방했다.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 황제였던 당대 무척천은 70이 넘어서까지 미소년들을 곁에 두고 희롱했다. 귀족여인들도 자유분방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한무제 때 平陽(평양)공주는 처음에 曹壽(조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자 자신이 직접 남자를 찾아나섰다. 이렇게 당나라 때 공주들이 자유로이 재가를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蔡文姬(채문희)는 처음에 衛仲道(위중도)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흉노의 左賢王(좌현왕)에게 재가했다가 다시 董祀(동사)와 결혼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여성의 재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여인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 낸 사랑이야기가 있는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그런 경우다. 중국의 경우, 漢武帝(한 무제)때 풍류재사였던 司馬相如(사마상여)와 그의 아내 卓文君(탁문군)의 러브스토리가 유명하다. 어릴 때부터 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가 진짜로 온달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남편을 성공시킨 이야기는 순박한 동화를 연상케 한다. 한편 탁문군과 사마상여의 이야기는 요즘 세대의 적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닮아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을까?



司馬相如(사마상여)

사마상여는 文武(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뛰어난 거문고 연주가였으며 독특한 한문문체인 漢賦(한부)의 대가였다. 그는 이런 재능을 바탕으로 양나라 孝王(효왕)의 신하노릇을 하다가 효왕이 죽은 뒤에는 고향 한나라로 돌아왔다. 사마상여는 예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臨邛(임공: 지금의 四川省(사천성) 邛崃市(공협시))의 縣令(현령) 王吉(왕길)을 방문했다가 卓王孫(탁왕손)이라는 부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는 예쁘고 총명한 딸 卓文君(탁문군)이 있었다. 탁문군의 나이 16세 때 그의 아버지는 딸을 동업자의 아들과 혼인시켰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청상과부가 되었다. 사마상여는 탁문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문

고의 대가라는 사마상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사마상여는 이들 앞에서 <鳳求凰(봉구황)>이라는 곡을 연주했다. 그런데 병풍 뒤에는 탁문군이 거문고 대가의 연주를 숨어서 듣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탁문군은 너무도 훌륭한 솜씨에 감동해 사마상여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침 함께 한 자리에서 아버지 탁왕손을 통해 탁문군은 사마상여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둘은 밤이 되자 밀애를 시작했다. 탁문군은 사마상여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사마상여의 평생 반려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둘은 같이 살 집도 마련하지 못했기에 은밀한 거처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왕길의 도움을 받았지만 세간 하나 준비하지 못한 채 그들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사마상여는 탁문군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 결혼을 허락받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탁문군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말했다. '만약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동업자에게 다시 시집보내려 할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한편 아버지 탁왕손은 딸이 사마상여와 야반도주한 소식을 듣고 대노했다. 그래서 일체의 경제지원을 하지 않았고 주변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탁문군은 전혀 굴하지 않고 가져온 패물을 팔아서 시장에 주막을 차렸다. 거부 탁왕손의 딸 탁문군이 주막을 열었다는 소식에 시정잡배들이 몰려 들었고 탁문군은 이들에게 기꺼이 술을 따랐다. 또 사마상여도 체면을 벗어던지고 저자 한복판에서 설거이를 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탁문군은 스스로 자립할 만큼 돈을 벌었고 사마상여는 한나라 군주를 예찬하는 <子虛賦(자허부)>를 썼는데 이 글이 한무제에게 전해졌다. 자허부를 읽은 한무제는 사마상여의 뛰어난 필력에 감탄하며 그를 불러들였고 벼슬자리를 주었다.

이후 탁문군은 중국역사에서 미인을 일컫는 대명사이자 남존여비의 시대적 환경에 맞서서 사랑을 쟁취하고 고난을 극복한 당당한 여장부로 일컬어졌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중국의 문호 林語堂(임어당)은 중국 현대 여성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탁문군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이를 봉건예교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개방적인 풍조에 따르면 이들의 도피행각이 오로지 봉건예교에 대한 저항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일반 민중들에게 예교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역사서 속에서 확인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예교가 완비된 직후의 상황이 위와 같았다면 민중들은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기》에서 '防陰(방음)', 즉 '음란함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귀족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황실귀족이 예교의 조건에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기》에서 남녀간 예교의 계율은 원래는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성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송대 정주리학은 성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北宋(북송)의 二程(이정) 즉 程顥(정호), 程頤(정이)형제는 洛陽(낙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때 형성된 학문을 洛學(낙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송대 유학의 주류를 이룬다. 어느 사람이 정이에게 과부가 먹고살 방도가 없다면 재가해도 되느냐고 묻자 정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굶어죽는 일은 극히 사소하나 절개를 잃은 일은 매우 중대하다.”

이 말은 《二程遺書(이정유서)》권22에 나오는데 이후 도학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명언

이 되었다.



二程(이정)

朱熹(주희: 1130~1200), 즉 주자는 이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주희는 格物致知(격물치지)와 誠意正心(성의정심)의 聖學(성학)을 제창하여 이른바 程朱理學(정주리학)을 형성하였다. 주희는 천리와 인욕이 완전히 대립되고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녀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너그럽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맹자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주희는 아예 ‘왕이 여색을 좋아하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맹자의 열린 생각에 대해서도 억지 해석을 했다. 이것이 남녀관계에 대해 진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고자 한 말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시경》에 나오는 자유분방한 연가를 음란한 노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남녀간의 예교는 송대에 이르러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융통성을 잃게 되었다. 예교에 대한 주희의 과민반응이 무색하지 않게 송대 유학자들 가운데에는 예교를 실천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즉 송대 이전처럼 남녀간의 예교를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려 한 것이다.

《人譜類記(인보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정이와 정호가 어느 날 연회에 갔는데 정이는 기녀가 있는 것을 보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정호는 여러 손님, 기녀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다. 다음날 정이가 이 일에 대해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자 정호가 말했다.

“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실 때 좌중에 기생이 있었을 뿐, 마음에는 기생을 두지 않았다. 동생은 오늘 기생이 없는 서재에 있는데도 마음에는 기생을 담아두고 있군.”

이 말을 들은 정이는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색욕에 대해 초연한 정호의 정신 세계를 잘 변론해 준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기생과 함께 놀면서도 이런 말을 변명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도학자들이 기생을 아예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더라도 때때로 시문을 고려하는 것을 선비의 풍류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화담 서경덕과 황진이의 관계가 그런 경우이다. 황진이가 가난한 서경덕의 서재를 찾아가 아무리 유혹을 했지만 서경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도학자들이 여인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풍류만 즐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주리학에서 남녀간의 예교를 강조했음에도 공공연히 방탕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대부들도 많았다. 첩이나 아내를 바쳐 벼슬을 사려 하거나 누이를 팔아 관부에 들여보내는 일도 있었

다. 문관 사대부들은 예교를 어긴 데 대해서 대체로 체면을 따졌으나 무인들은 오히려 무용담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그런 한편 기생제도도 성행했다. 그것은 평소 자연스러운 남녀교제나 욕구분출이 억압되자 일종의 보상심리로 남자들이 직업여성을 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남녀 모두가 입으로만 예교를 강조하고 겉으로 짐작은 척하지만 실제와는 다른 상황이 생겨났다.

연회석상에 기생이 있어서 되돌아간 정이처럼 정주리학을 형성한 주희도 당중우를 비판한 적이 있다. 주희는 당중우가 어느 기생과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폭로했다. 그러나 예교를 못 지키기는 주희 또한 마찬가지였다. 《四朝聞見錄(사조문견록)》에는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장한 주희가 비구니 두 명을 유인해 첩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주희는 외방 관직에 나갈 때 이들을 데리고 다녔으며 그의 큰 딸은 남편이 죽은 뒤에 임신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이것은 송 慶元 2년(1196년) 감찰어사 沈繼祖(심계조)에게 지적당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寧宗(영종)은 그의 관직을 깎아내리게 했고 주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문을 올렸다.

“초가집에나 사는 천한 선비이자 타락한 글을 쓰는 유생으로 오직 그릇된 학문만 전할 줄 알았으니 어찌 시대를 밝히는 일에 적합하겠습니까? 지난 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지금 옳은 바를 세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朱熹(주희)

이런 일은 모두 송대 도학가들이 말과 실체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쨌든 이런 예로 볼 때 당시 예교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항상 예로써 남녀간의 예교를 지키려 한 도학자들도 있었다. 《夢溪筆談(몽계필담)》권2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張咏(장영)이 촉 땅에 진을 쳤는데, 늘 때는 선비와 여자가 좌우에 둘러 있었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도록 돌아보지도 않았다. 또 장영은 여자노비를 두고 시중을 들게 하다가 4년을 지나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다. 장영은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시집 보내게 했는데 그녀는 손끝 하나 대지않은 처녀의 몸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 때 장영이 곁에서 시중드는 여자노비에게 마음이 동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역시 마음 속에 색욕과 금욕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다. 그 때마다 그는 ‘장영은 소인배다, 장영은 소인배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유혹을 이겨냈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더욱 예교를 엄격히 지켜야 했다. 특히 상층사회의 여인들은 자칫하면 음란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 억압을 인내해야 했다. 송대 이후에는 점차 ‘節

婦(절부)’와 ‘烈女(열녀)’가 늘어났다. 열녀는 남편을 위해 죽거나 폭력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죽은 여성이고 절부는 남편의 사망 이후 개가하지 않은 여성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그들을 위한 牌坊(패방: 중국의 열녀문)이나 정절비를 세우거나 전기를 지어주기도 했다. 이를 본받아 조선에서는 열녀나 절부를 위해 旌門(정문)을 세워 주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 명청 시기에 날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시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날로 심해졌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예이다.

예교는 후세로 오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봉건사회를 고수하려는 통치계급 일부가 통치계급의 도덕기준으로 예교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교의 속박도 점차 강화되었다. 예에 대한 지나친 왜곡과 강요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잃게 만들었다. 예교의 속박은 더욱 심해져 사람을 옴아매는 구실로 작용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예교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이 나왔는데 李贄(이지)와 袁中道(원중도)가 대표적이다. 예교를 비판한 이지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학문을 주창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자살했다. 그런데 실제 그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금욕주의자로, 금욕만이 진정한 예교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그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교를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과의 교류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죄상이 되었던 시대에 그는 梅澹然(매담연)등 자신과 학문적 교류를 한 여성들을 공공연히 칭찬했으며 불교에 관해 이들과 문답한 내용을 《觀音問(관음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당시 통치이념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당시 권문세족과 고급관료들 중에도 도학을 배격하고 지나친 예교를 비판한 그에 대해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시에는 체제를 뒤흔들 만큼 위험하고 과격한 급진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몇 차례나 이지의 저서를 불살라버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지의 책은 계속 전파되었고 근절되지 않았다.



李贄(이지)

이후 청대에 들어와서도 통치자들이 정주리학을 강력히 주창하면서 예교에 대한 왜곡된 강요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예교비판의 흐름도 이어졌다. 특히 戴震(대진)은 《맹자》에 대한 주석인 《맹자자의소증》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맹자의 원래 뜻과 달리 ‘천리와 인육의 구분’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 대진은 송대 성리학자인 이정과 주희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리와 인육의 구분은 잔인하고 잔혹한 살인도구이다.

둘째, 천리와 인육의 구분은 권력계층의 살인도구이다.

셋째, 실제로는 금욕이 불가능한데 이론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인 허위만 결과

적으로 조성할 뿐이다.

2. 일부일처다첩제

중국 고대의 남자들은 처는 하나만 둘 수 있지만 첩은 여럿을 둘 수 있었다. 혼인관계는 일부일처로 처와 첩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개념이었다. 부부가 하늘의 해와 달처럼 하나일 뿐이라면 첩은 별처럼 여러 명일 수 있는 것이다. 유가의 《三禮(삼례)》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다. 남성의 사회지위에 근거하여 처첩의 수와 명분이 정해졌다. 흔히 역사적으로 축첩현상을 ‘다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일처일첩’ 또는 ‘일처다첩’이 맞다. 옛 중국에서 본처의 지위는 첩에 비해 절대적이었다. 첩이 잘못하면 본처에게 맞거나 다른 곳에 팔려가는 일도 있었다. 《백호통·가취》에 나오는 말처럼 결혼 첫날 밤에야 신랑신부가 얼굴을 보게 되는 중매혼이 일반적인 혼인형태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남녀는 서로가 선택해서 결혼할 수 없었고 반드시 중매와 양가 가장의 주선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되 《儀禮(의례)》, <士昏禮(사혼례)>에 따라 六禮(육례)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納采(납채: 신랑측에서 청혼의 예물을 보냄), 問名(문명: 신부의 출생 연월일을 물음), 納吉(납길: 문명 후 길조를 얻으면 이것을 신부측에 알림), 納幣(납폐: 혼인을 정한 증명으로 예물을 신부측에 보냄), 請期(청기: 신랑측에서 결혼날짜를 정하여 신부집에 동의를 구함), 親迎(친영: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함)의 육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예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고대사회에서 전쟁에 진 쪽의 여성은 노동력일 뿐 아니라 주인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다. 여자가 노예주의 마음에 들면 노예주의 아내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일반 노비보다는 높은 신분의 첩이 되었다. 즉 일부다처제(*정확히는 일부일처다첩제)는 중국고대 통치자의 재산이 확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사회는 모계 씨족사회에서 부계 씨족사회로 변모되었고 사유재산제가 나타났다. 사유재산의 확대로 남녀간에 불평등이 나타났고 일부다처제가 출현했다. 여성은 남성이 점유하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봉건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관념은 더욱 보편화되었다. 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 남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성장했다. 많은 처를 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남자들에게 자기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다. 그래서 포로가 생기면 죽이지 않고 남자포로는 노예로, 여자포로는 처첩으로 삼았다. 이런 사회에서 天子(천자)는 가장 큰 노예주였고 가장 많은 처첩을 거느렸다. 그리고 귀족들도 노예주로서 지위에 따라 여러 처첩을 거느렸다. 남자들은 처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것은 권력의 크기와 비례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천하의 모든 재산과 토지는 천자의 것이고, 천하의 모든 여성도 천자의 것이었다. 일부다처제는 그 시작부터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권력은 예교보다 위에 있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는 통치자들이 재물을 약탈하는 동인이 되었다.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비용지출은 처첩의 수량에 따라 증가한다. 천자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점유한 재산의 일부분을 다처와 다자녀를 위하여 쓸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막대하여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백성들에 대한 착취는 극심했다. 秦叔寶(진숙보), 孫皓(손호), 隋煬帝(수양제), 당현종 등 중국의 제왕들은 모두 후궁에 빠져 나라를 기울게 했다. 일부다처제는 제왕들의 무한한 소유욕을 만족시켰지만 실제로는 역대 왕조가 쇠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전대 왕조의 멸망의 원인이 부패와 후궁이 많은데 있음을 목도한 통치자는 처첩의 수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다. 그러

나 새 왕조가 점차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전대 왕조의 멸망은 잊어버리고 황제는 또 다시 후궁을 마구 들이게 된다. 이에 대해 동한의 陳蕃(진번)이 올린 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데, 여자 수천을 뽑아서 고기를 먹이고 비단옷을 입히며 기름을 바르고 분칠하니 그 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속담에 도적도 딸 다섯 가진 집은 흠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딸이 많으면 가난한 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후궁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진번은 일부다처제가 나라의 부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황제 1인이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반면에 사회 하층의 남자들은 여자를 못 구해 평생 홀아비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해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등장한다.

“지금 수많은 궁녀들이 폐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처음부터 버림받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도가 통하지 않고 꼭 막혀 있는 것을 하늘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궁녀들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후한서》 〈낭개전〉)

“지금 궁중에는 왕에게 딸린 여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홀아비가 많고 왕에게 딸린 여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기후가 사나운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삼국지》 〈육개전〉)



일부다처제, 더 정확히 말해 一夫一妻多妾制(일부일처다첩제)는 춘추시대 초기에 정착되었다. 예를 들면 《周官(주관)》 및 《昏義(혼의)》에 있는 주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천자는 황후 1명, 비 3명, 嬪(빈) 9명, 世婦(세부) 27명, 御妾(어첩) 71명을 둘 수 있다고 한다. 한편 《獨斷(독단)》에는 ‘제후는 한 번에 아홉 여자를 취할 수 있는데 마치 아홉 주가 있는 것과 같이 처 하나에 첩이 여덟이다. 경대부는 처 하나에 첩이 둘이다. 사대부는 처 하나에 첩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다.

妃(비)란 군왕의 집 안에서 첩의 지위에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옛 중국에서 군주의 총애를 받는 여인은 종종 속죄양처럼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치를 망친 책임을 떠안기도 했다. 楊貴妃(양귀비)는 당현종의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있는妃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정부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귀비 뿐 아니라 그녀의 세 자매도 마찬가지로 당현종의 후궁이 되었는데 이를 媵妾(잉첩)이라고 한다. 잉첩이란 신부의 여동생이나 하녀를 첩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혼인제도 중 하나로서 잉첩제도는 《春秋胡傳(춘추호전)》에 그 예가 보인다. 이에 따르면 옛날 제후는 아홉 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 중 잉첩이 두 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잉첩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특히 조정과 상류층에서 많이 행해졌다. 그러면 옛 중국에서 일부다처다첩의 풍속을 짐작케 하는 기록을 살펴보자.

韓侯(한후)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汾王(분왕)의 생질이 신부라
蹶父(궐부)의 큰 딸이 시집가는 것
한후가 친히 나가 맞이하네
蹶地(궐지)의 골목에 도착하니
백 대나 되는 수레가 요란하네
이어져 달린 방울은 딸랑거리고
혼례는 영광스런 빛을 발하네.

(《詩經(시경)》 〈大雅·韓奕(대아·한역)〉)

그러나 결혼하는 신부 가운데 자기 하녀나 언니, 여동생을 남편의 소실로 데려가고픈 여자가 있을까? 《시경》 〈召南·江有汜(소남·강유범)〉 에는 잉첩의 대상으로 점찍은 하녀를 신부가 안 데려가려 하자 하녀가 답답해 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녀 입장에서는 주인아씨 남편의 소실이 되어야 형편이 풀리므로 시첩으로 가고픈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강에 지류가 있네.
우리 아씨 시집갈 때
나를 데려가지 않네
데려가지 아니하면
나중엔 후회하리

강에 모래섬 있네.
우리 아씨 시집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네
함께 가지 않네.
그러나 나중엔 함께 살게 되리

강에 셋강 있네.

우리 아씨 시집갈 때
내게 들르지 않네
들르지 않네.
그러나 나중엔 슬픈 노래하게 되리
(《시경》 〈소남·장유범〉)

그러나 못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첩이 있을 때 남편은 아무나하고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본 처를 비롯한 모든 첩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줄 의무와 규정도 있었다. 《예기》의 〈내칙〉은 이에 대한 규율을 언급하고 있다.

“첩이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50세가 되지 않았으면 남편은 반드시 닷새에 한 번은 그녀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예기》 〈내칙〉)

이처럼 《예기》에서 처와 첩을 여럿 둘지라도 동침의 규율까지 제시해 놓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대가족 전통을 살펴보면, 당 고종 때 張公藝(장공예)의 경우 9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족이 1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처와 처, 첩, 이들의 몸종, 머슴, 유모까지 합치면 엄청난 대가족이다. 처첩들의 질투 속에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가장의 역할, 그 고뇌는 남자들의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嫉妬(질투)’라는 한자어를 보면 ‘嫉’과 ‘妬’, 두 글자 다 ‘女’자가 있는데 어원적으로도 여자의 강한 질투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을 보면 가장의 고뇌를 짐작할 만하다. 일부다처제 하의 가정문제는 명대소설 《금병매》에서도 잘 드러난다. 《금병매》에서 주인공은 서문경과 반금련이다. 서문경의 본처는 吳月娘(오월랑)이고 반금련은 서문경의 다섯째 첩이었다. 서문경은 반금련을 다섯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또 친구의 아내인 李瓶兒(이병아)를 여섯째 부인으로 삼는다. 그러자 반금련에 의해 첩끼리 반목이 발생하고 주변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맺어진다. 첩들간의 질투와 추종, 사기와 불행 등 온갖 악덕이 난무하고 이에 따른 불행이 이어진다. 본처 오월랑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다른 첩이 아이를 낳자 반금련은 질투심에 고양이를 길들여 그 아이를 물어죽이게 한다.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은 당시 일부일처다첩제에서 가정의 분열상을 잘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3. 기생

그렇다면 기생은 중국에서 언제 유래되었으며 예교 속박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기생은 중국에서 ‘奴婢(노비)’에 속했다. ‘奴’는 남자이고 ‘婢’는 여자인데 시첩이나 家妓(가기: 집의 기생)는 ‘婢’의 범주에 속했다. 역사서에서는 때때로 가기와 시첩을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구분되었다. 시첩은 직분이 있지만 가기는 정식 직분 없이 첩과 시비의 중간 위치였다. 첩은 주로 젊고 예뻐야 하고 주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가기는 성적 서비스 외에도 엄격한 훈련을 받아 주인에게 가무나 음악과 같은 예술과 오락을 제공해야 했다. 이들은 남을 위해 노역하고 시중을 드는 여성이었다. 법적

지위에 있어서 노비로서 이들의 신체는 주인의 소유로 재산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들은 인격이나 자유가 없었고 자손과 가계가 세습되었다. 형법적으로 시녀, 가기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고대에 평민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여성이 강간에 저항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자기집 시녀를 강간하는 것은 《唐律(당률)》이나 元代(원대) 《刑法志(형법지)》에 아예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에 죄를 묻지 않았다.



馮暉(풍휘)의 무덤벽화에 있는 시녀

앞서 제2장 [경국지색의 미인들] 2절 ‘말희’에 대한 소개에서 하나라의 여악과 여자배우 수가 3만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대 劉向(유향)의 《烈女傳(열녀전)》, <夏桀妹喜傳(하갈말희전)>을 살펴보자.

“걸왕은 이미 예의를 버렸으니, 아녀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미인을 구하여 후궁에 모아놓고 괴이한 짓을 했다. 놀이에 뛰어난 난쟁이배우와 스스럼없이 노는 부랑배들을 거두어 곁에 두었다.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 밤낮으로 말희와 궁녀들과 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말희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어원적으로 ‘기녀’는 결코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무를 직업으로 했다. 《설문해자》에는 ‘기는 여인네의 작은 기예다(妓, 婦人小物也)’라고 했다. ‘妓’자는 ‘伎(기)’, ‘技(기)’ 같은 글자와 고대에는 통용되었는데 ‘媚(창)’이나 ‘倡(창)’과 같은 자와 연관되어 쓰일지라도 가무예술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역사서에도 ‘妓’와 ‘倡’은 女樂(여악: 집안의 여자기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중국의 기녀는 노예사회에서 노예주 집안에서 키웠던 가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본다. 기녀를 소유한 노예주가 제왕이면 그 기녀는 궁기이고 귀족이면 가기가 된다. 그리고 관기는 지방 관부의 악적에 오른 기녀를 말한다. 위에서 예로 든 <하갈말희전>의 기록에 따르면 관기는 하왕조에 이미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몸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여자를 기녀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들어온 뜻이다.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기생의 출현은 비교적 늦다. 이들의 변화는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예술을 파는 단계이니 위진남북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예술과 섹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가무를 할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성적 대상이 되었다. 수당부터 원말명초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 무렵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女樂(여악)이 출현한 것이다. 여악은 오늘날 기생의 효시로 음악을 연주하고 손님접대도 하는 그런 여자이다. 이들은 왕후장상의 공식적인 연회, 즉 파티 자리에서 가무를 하는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은 주인은 물론 주인의 가신이나 빈객들과 난잡하게 몸을 섞었다. 이들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여성의 정절이 중요시되지 않던 시대여서 여자들은 전리품 정도로 치부되어 왕이 소유하거나 전투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기도 했다. 원래 중국에서는 殷(은: B.C1783~B.C1122)나라 때 이미 매춘업이 있었다고 한다. 《東周策(동주책)》에 의하면 중국에서 정식으로 기원이 설립된 것은 춘추시대 齊(제)나라 재상 管仲(관중)이 설립한 女閭(여려)에서 비롯된다. ‘閭(려)’는 門(문)으로 궁중에서 성문에 기원을 만들어 여자들을 살게 한 데서 유래했다. 관중이 국가적으로 기원을 설립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첫째, 화대를 거두어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남자들의 성욕을 해결하고 여자노예를 대량으로 안주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여자를 좋아하는 유세객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넷째, 제 환공에게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관중이 기원을 설립하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모방했다. 어떤 제후는 미인계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를 제압하기도 했다. 한편 전형적인 營妓(영기), 즉 종군위안부는 《越絶書(월절서)》와 《吳越春秋(오월춘추)》의 기록에서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越王 句踐(월왕 구천)이 과부를 산 위로 보내 병사들에게 성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영기 제도는 한대에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漢武外事(한무외사)》에는 ‘한무제가 처음 영기를 설치하여 병사들 중 아내가 없는 자들을 접대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 역시 가정을 떠나 장기간 군영에 머무르는 수십 만 병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私妓(사기)는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존재했으며 진한시대에는 宮妓(궁기)가 대단히 성행했다. 또 귀족들이 집안에 가기를 두는 풍속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가기를 두는 풍속은 더 성행했다. 이런 예에서 중국 기생의 시작을 엿볼 수 있으나 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몸을 팔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매춘의 시작은 唐(당)나라 때로 여겨진다. 이후 폐쇄적인 宋(송)대에 매춘이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元(원)대에는 매춘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생이 매춘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계가 셋째 단계이니 명청대 이후가 해당된다. 직업으로서 당나라 때의 기생은 官妓(관기)와 歌妓(가기)가 있었다. 관기는 지방에서 관아의 관리를 받았는데 이들이 모인 곳을 樂營(낙영)이라고 불렀다. 또 飲妓(음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들은 관원의 연회에서 함께 마시면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했다. 새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牒召(첩소)를 가지고 음기를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관서에서 음기를 불렀지만 당시 관기는 관원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즉 서로간에 연정이 생겨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宋代(송대)에는 官妓(관기)와 家妓(가기) 모두 대단히 성행했다. 사대부들은 집에 가기를 두었으며 술자리에는 관기와 술을 주고 받으며 놀았다. 당시의 관점으로는 사대부가 기녀와

술을 마시며 시를 唱和(창화)하며 원만하게 지내면서 일정한 선을 넘지않는 것을 풍류로 보았다. 明代(명대)에도 사대부 집에 가기를 두는 경우가 흔했지만 관기는 점차 줄어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방이 흥성하게 된다. 이것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매춘업이 발생한 것은 도시의 출현,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관료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자라면 누구나 여자와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기

청말 이래 매춘업은 주업과 부업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주업으로 하는 기녀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매춘업을 하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업으로 하는 기녀는 명목상 매춘을 하지 않지만 몰래 매춘을 하는 경우이다. 매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옛 중국의 여성이 매춘업에 빠지게 되는 데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저당잡히게 된 경우가 있다. 둘째,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파는 경우이다. 셋째, 가난한 집안의 남편이 딸이나 아내를 기방에 빌려주는 것으로 시간당 얼마로 보수를 받고 빚을 갚았다. 넷째, 인신매매로 외지의 기방에 팔려온 경우가 있었다. 다섯째, 스스로 윤락녀가 된 경우이다.



예인과 기녀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일부러 눈을 멀게 한 맹인 기녀도 있었으니 이를 瞽女(고녀)라 했다. 고녀는 원래 일본어의 고유명사로 일본 ‘越后(에찌고)’지역(현재의 新潟: 니이가타)을 떠돌던 두 눈이 먼 여성예인들을 뜻했다. ‘에찌고고녀’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에찌고지역에 있었던 여인들이다. 바로 일본의 작가 家川端康(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지은 소설 《雪國(설국)》에서 묘사한 큰 눈이 내리는 지방이 그곳이다. 이곳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해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여건과 끝없이 싸워야 했는데 고녀들의 공연은 이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위안거리가 되었다. 고녀들은 신체적으로 불구여서 정상인처럼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기예를 배워 파는 수 밖에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室町幕府(무로마찌 바쿠후)시대, 즉 14세기부터 에찌고고녀가 생겼다고 한다. 그녀들은 샷갓을 쓰고 짚신을 신고 등에는 큰 보따리를 지고서 여러 촌락을 떠돌았다. 촌락에는 고녀들을 위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고녀여인숙’이 따로 있었다. 고녀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저녁이 되면 여관에서 사람들을 위해 공연을 했다. 그 다음날부터는 각 가정을 돌면서 공연을 했다. 매년 에찌고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철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고녀들의 방문을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고녀는 이와 좀 달랐다. 옛날 중국의 인신매매꾼들은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을 사다가 꼬챙이로 눈동자를 찢어서 눈을 멀게 했다. 소경이 된 고녀들은 노래를 익히고 악기 다루는 것을 배우고 사내를 기쁘게 하는 온갖 성기교를 배웠다. 그런데 멀쩡한 소녀를 장님으로 만든 것은 왜일까? 그것은 이들이 성의 노리개일 뿐, 손님으로 받을 남자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손님의 외모를 보지 못하면 남자에게 연정을 느끼지 못할테니 오로지 성의 도구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고녀는 여성을 철저히 성의 노리개로 만든 잔혹한 차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四庫全書(사고존목총서)》子部(자부) 제 105책, 田藝蘅(전예형)의 《留青日札(유청일찰)》21권을 보면 이들이 이성매춘은 물론 동성매춘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모두가 옛날에 굶어죽거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불구가 되더라도 몸을 팔면 먹고사는 일은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생계의 방편으로서보다 우선되었을 것이다.

저자 약력

이름	김명석
학력	1994년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199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 2000년 中國 南京大學校 대학원 中文系 박사 200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 후 연구과정(Post. Doc) 수료
경력	2003~2005년 KCU한국사이버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2005년~ 위덕대학교 중국어학과 조교수
연구논문	〈홍콩 대중문학에 나타난 홍콩인의 정체성 연구 ①—무협소설을 통한 金庸의 정체성 찾기〉 〈탈식민의 굴절된 렌즈에 갇힌 이야기—王家衛의 『2046』〉 등 23편